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4 스냅샷(국문)

저자: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번역: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정책 보고서

2024년 6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는 2008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경제, 금융, 지리, 환경, 국제 개발, 정치 경제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성을 결합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세계적인 선도 연구 센터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Grantham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데, 동 재단은 Imperial College London의 Grantham Institute –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

저자 소개

Joana Setzer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의 조교수 연구원이다.

Catherine Higham은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의 정책 연구원(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Maria Antonia Tigre 박사, Margaret Barry의 노고와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s Network of Peer Reviewers의 노력 없이는 작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글로벌 기후 사례의 다양한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지원과 의견, 귀중한 도움을 준 Emily Bradeen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저자들은 자신의 박사학위 프로젝트에도 사용된 데이터 업데이트를 공유해 준 Tabea Kraus와 Alice Bisiaux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미국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준 Josephine Chiname과 결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준 Sindi Kuc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저자들은 본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해 준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Tiffanie Chan, 그리고 April Williamson, Ben Batros, Filippo Fantozzi, Harro van Asselt, Joe Udell, Kim Bouwer, Margaret Barry와 Michael Burger가 본 보고서에 대해 주신 유익한 의견에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는 Georgina Kyriacou의 사본 편집, Sam Kumari의 서식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다.

Joana Setzer와 Catherine Higham은 본 보고서에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for the Environment, Grantham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저자들은 제출된 작업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나 활동이 없음을 선언한다.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견해를 담은 것으로, 주관 기관이나 후원자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하지는 않는다. 모든 오류와 누락의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6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 원 저자들, 2024

권한 요청 시 Grantham Research Institute로 연락해야 한다.

추천 인용법: Setzer J and Higham C (2024)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 London: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원 저작물에 관한 권리 이외에, 국문 번역에 따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 보유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의 저작물 인용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임두리 변호사, duri.leem@fourclimate.org)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저작자 및 출처를 표기하여서만 가능하며, 이외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목차

요약.....	1
서문	7
제1부: 기후 소송의 글로벌 환경.....	10
기후 소송의 증가.....	10
전 세계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기후 소송	11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	13
원고와 피고: 기후 소송의 주요 당사자.....	18
기후 소송의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	21
제2부.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 사례.....	22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송 전략.....	22
A.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26
B. 의사 결정에 기후 고려사항 통합.....	30
C. 오염자 부담 소송.....	31
D.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	33
E. 적응 실패 소송.....	34
F. 전환 리스크 소송	35
G. 기후위성 소송.....	37
H.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39
제3부.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의 발전.....	40
A. ESG 백래시 소송	41
B.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 소송	42
C. 정의로운 전환 소송	43
D.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	43
제4부. 영향 및 향후 동향.....	45
법정 밖에서의 영향력	45
미래 동향	49
결론.....	52
부록: 방법론 주석.....	53
데이터 수집.....	53
사례 분류에 대한 접근 방식	53
전략의 분류.....	53
결과의 분류.....	55

주요 동향

- 2023년에 최소 230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소송 건수가 이전보다 더디게 증가했는데, 이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전략적 소송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후 소송은 새로운 국가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2023년에는 파나마와 포르투갈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 2023년은 주요 국제 법원과 재판소가 기후 변화에 대한 판결 및 자문을 요청받는 등 국제 기후 변화 소송에 있어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기후 소송의 단 5%만이 국제 법원에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소송 중 상당수는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2023년에는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들에서 상당한 성공이 있었는데,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기후 정책 대응에 대한 의욕이나 실행 등을 문제 삼는다.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의 *KlimaSeniorinnen and ors. v. Switzerland*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이어 추가적인 소송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을 상대로 한 전략적 기후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30건의 소송이 확인되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위성'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47건의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어, 총 140건 이상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소송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종결된 소송의 70% 이상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 '오염자 부담(보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소송 당사자들은 기업이 그룹 차원의 정책과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기후 목표에 맞추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제기된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중 한 건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현재 이러한 사건 중 주요 사건인 *Milieudefensie v. Shell*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 올해의 분석에서는 기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 이사 및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는 새로운 범주의 '전환 리스크' 소송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Enea의 주주들은 폴란드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 계획에 대해 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 2023년에 제기된 230여 건의 소송 중 약 50건은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 소송은 기후 행동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소송은 기후 행동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기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 소송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후 리스크를 재무 의사 결정에 통합하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ESG 백래쉬' 소송.
- 기후 의제를 추진하는 비정부기구(NGO) 및 주주 활동가들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되는, 대중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 주로 인권을 근거로 하여, 기후 정책의 분배적 영향이나 정책 개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인 정의로운 전환 소송.
- 기후와 생물 다양성 또는 기타 환경 목표 간의 잠재적 상충 관계에 관한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Green v. green cases).

2023년도에 초점을 맞춘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 사건에 대한 연례 시리즈의 최신 보고서로, 이러한 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디서 제기되었고, 또한 누가 제기하였는지에 대한 수치적 분석과 제기된 소송 유형의 추세 및 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제공한다. 이 요약에서는 주요 검토 결과 및 분석 포인트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 '미국 소송(US cases)'과 '글로벌 소송(Global cases)'을 구분하여 언급하는 경우, 후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제 및 지역 법원 및 재판소를 포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을 의미한다.¹

2023년에 230건 이상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의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우리 데이터 세트에는 현재 2,666건의 기후 소송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약 70%가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고, 이 중 233건은 2023년에 제기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적인 신규 소송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많은 국가로 확대되는 기후 소송

미국은 2023년에 제기된 129건의 소송을 포함하여 총 1,745건의 기후 소송이 접수되어 있는 국가로, 여전히 가장 많은 기후 소송이 접수된 국가에 해당한다. 미국 다음으로 2023년에 기록된 소송 건수가 많은 국가는 영국(24건), 브라질(10건), 독일(7건)이다. 이 세 국가는 현재 영국이 139건, 브라질이 82건, 독일이 60건으로 총 기록 건수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에는 파나마와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기후 소송이 제기되었다. 헝가리와 나미비아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소송이 최초로 확인되어, 현재 기후 소송이 접수된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집계된다.

남반구 개도국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남반구 개도국에서 제기된 2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소송의 약 8%를 차지한다. *M.K. Ranjitsinh and Others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권리가 확립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2023년은 특히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후 소송에 있어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지난 수년간 전체 기후 소송의 약 5%에 해당하는 146건의 사건이 국제, 지역 법원 및 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 이들은 '국제 소송'으로 분류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여기에는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및 European Ombudsman에 제기된 소송 70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 및 지역 소송 중 9건은 2023년에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국제 사건 및 신청 중 약 45%가 국제 인권 법원, 기구 및 재판소에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기후 소송에서 인권 논거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2024년 4월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에 제기된 3건의 사건과 Inter-American Court on Human Rights의 권고적 의견 요청(2023년 제출됨)이 포함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2023년 제출됨)에 대한 대응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들에서도 인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4년 5월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오염을 방지하고 손상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기후 소송은 비정부기구(NGO) 또는 개인들이 제기하고 있다.

2023 년 미국 및 글로벌 소송 모두에 관하여, 전체 소송의 70 % 이상의 사건들은 비정부기구(NGO), 개인 또는 양자가 협력하여

¹ 이는 Sabin Center에서 관리하는 두 개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한다.

제기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시민 사회 활동가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전략적 기후 소송이 증가되었다는 점 역시 반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작년에 제기된 소송의 약 20%에서 정부 기관이 원고가 되었다.

기업 및 무역 협회가 상당한 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에 제기된 전체 소송 중 13%는 기업과 무역 협회가 제기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기업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의 목적은 기후 정책과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후 행동을 지지하거나 '기후위험'(그린 워싱의 한 형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전체 소송의 약 70%에서 정부 기관이 피고가 되었고, 기업이 피고가 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국 소송과 글로벌 소송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소송에서는 거의 85%의 사건에서 정부가 피고가 되었고, 기업이 피고가 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글로벌 소송에서 정부가 피고가 된 경우는 60% 정도의 낮은 비율인데 반하여, 40%에서는 기업이 피고가 되었다.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기후 문제로 법정에서 서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파리 협정 비준 이후 기업과 무역 협회를 상대로 약 230건의 기후 관련 전략적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2020년 이후에 제기되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 부문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제는 항공사, 식음료 산업,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등 다른 부문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전략적 소송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우리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전략적 소송들에서 몇 가지의 전략들을 확인했는데, 각 전략을 채택한 사례의 수와 현재 또는 최근의 주요 사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후 정책 대응에 대한 의욕이나 실행에 도전한다:

- 2023년에 15건의 소송이 새로 제기되었으며, 2015년 이후 1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KlimaSeniorinnen and ors. v. Switzerland* 사건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에서 진행된 *Held v. Montana* 사건은 미국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 운동의 첫 번째 큰 승리로 기록되었다.
- 각국 정부의 넷제로 목표의 무결성, 즉 목표의 명확성과 실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후 고려사항 통합' 소송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부문별 정책에 대한 결정에 기후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3년에 97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 새로운 화석 연료 생산 및 화석 연료 발전의 인허가 또는 개발과 관련된 소송이 다수이다. 2024년 1월 오슬로 지방법원은 *Greenpeace Nordic and Nature and Youth v. Energy Ministry* 사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Scope 3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러한 소송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포기되거나, 프로젝트 제안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출하여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오염자 부담(보상)' 소송은 유해한 기후 변화 영향에 기여한 혐의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 2023년에 5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5년 이후 3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 미국 주정부가 소위 탄소메이저(Carbon Majors)를 상대로 제기한 많은 '기후 책임 소송'들은,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소송들이 주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 2023년 9월, 캘리포니아 주는 5개 탄소메이저 석유 회사와 미국석유협회에 대해 기후 소송을 제기한 최대 규모의 지방 정부가 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유 회사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수십 년간의 기만"이라고 묘사하였다.
- 벨기에 농부가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Total을 상대로 기후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Falys v. Total* 사건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제기된 오염자 부담 소송이 되었다.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은 그룹 차원의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이 높은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 2023년에 3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22건의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되었다.
- 이러한 소송들은 일반적으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의 목표 또는 넷제로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2024년 2월 뉴질랜드 대법원은 *Smith v. Fonterra*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존 각하 결정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기업 사건의 중요한 사례로서, 사실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잠재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한다.

'적응 실패' 소송은 기후 위험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

- 2023년에 8건의 새로운 소송이 접수되었고, 2015년 이후 64건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 2023년 Friends of the Earth는 영국 정부의 제3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시민을 지원했다.
- 이러한 소송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향이 점점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환 리스크' 소송은 이사, 임원 및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탄소 전환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 2023년에 1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 이후 17건만이 접수되었다.
- 이는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소송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소송 유형이다.
- 2023년 12월, 폴란드 에너지 기업 Enea는 취소된 Ostroleka C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회사의 투자를 지지했던 전직 이사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후위상' 소송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 또는 기업의 기여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에 도전한다:

- 2023년에 47건의 소송이 새로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14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기후 소송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 기후위상 소송은 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후 중립성에 대한 주장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운송과 관련된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호주 연방법원은 *Vanguard Investments Australia*의 윤리적 채권에 대한 주장이 허위이며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은 기후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재정 흐름에 도전한다:

- 2023년에 6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 이후 33건의 소송이 기록되었다.
- *Jubilee v. EFA and NAIF* 사건에서, 호주 비정부기구(NGO)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투자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비사법적 절차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Saudi Aramco의 재정적 후원자의 책임에 대한 UN 전문가들의 의견서, 우간다의 토탈에너지가 계획한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험 중개인 Marsh에 대한 미국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대한 이의신청이 존재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전략적 소송의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는 다양하다.

네 가지 주요 유형의 전략적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평가했다:

- **정부 프레임워크:** 해당 유형의 소송 중 약 60%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 중 3분의 1에서는 기후 행동 긍정적인 결론이, 3분의 2에서는 청구인의 관점에서 기후 행동 관점에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인 일부 사건은 기후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오염자 부담:** 2015년 이전에 미국에서 제기된 초기 오염자 부담금 소송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기된 33건의 소송 중 대다수는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Lliuya v. RWE* 소송에서 증거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됐으며, 가장 먼저 실질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프레임워크:** 해당 유형 소송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판결이 내려진 소송 중 절반에서는 승소했고 절반에서는 패소했다. Shell이 배기가스 감축 목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Milieudefensie v. Shell* 사건의 승소와 최근 뉴질랜드 대법원이 *Smith v. Fonterra* 사건을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한 결정은 항소 법원에서 기각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건과 비교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기후위성:** 판결이 내려진 사례 대부분에서는 성공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약 140건의 기후위성 사건 중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선고를 받았고, 이 77건 중 54건(즉, 70%)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기후 행동이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 접수된 230여 건의 소송 중 약 50건에서는 반기후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중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때때로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의도적으로 기후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적 전술을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백래시 사건은,**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그들에게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2023년에는 기후 위험을 재무 결정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신탁 의무 위반과 기관적 관행에 관한 혐의가 제기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Spence v. American Airlines* 및 *State ex rel. Skrmetti v. BlackRock* 소송이 있다.
-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 소송은,**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 기타의 자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의 예로는, Shell과 Total이 Greenpeace 기타 비정부기구(NG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Exxon이 주주 활동가 단체인 Arjuna Capital 및 Follow Thi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존재한다.

모든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이 반드시 기후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아래를 확인할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기후 행동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행동이 설계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후 행동을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인, 지역사회 또는 노동 단체가 제기한다. 소규모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유역'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련하여 UN 특별보고관 그룹이 프랑스 정부에 전달한 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은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과 기후를 근거로 하여 도입되는 프로젝트 또는 정책 사이에 명백한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인도 대법원 판례인 *M.K. Ranjitsinh and Others v. Union of India* 사건과 미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고래 개체군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있다. 이러한 사례 중 일부는 기후 행동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

법정 밖의 기후 소송

기후 소송의 영향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넘어 정책, 거버넌스 및 공공 담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에 기여하면서 이를 경험하기도 하는 주요 행위자 그룹은 아래와 같다:

- 법원은 판결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공개적인 변론절차 및 판결을 통해 기후 과학을 공론화하며, 기후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기후 소송은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에 따른 기후 프레임워크 법 개정이 있다. 기후 소송은 버몬트 주 Climate Superfund Act 법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은 화석 연료 기업에 기후 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다른 주와 필리핀의 입법자들도 유사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 규제 당국은 기후 소송 리스크를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보고서는 더욱 발전된 위험 평가 방법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당국은 이러한 위협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보험 업계가 소송 리스크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보험 및 재보험 회사는 기후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 관리 전략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규제 기관은 강력한 위험 평가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기후 소송은 법조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 협회는 법률 전문가들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로펌들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 자문 시 기후 위험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률 및 컨설팅 회사들도 기후 소송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 소송의 향후 동향

향후 동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난 이후 소송:** 화석 연료 기반 인프라의 재건에 이의를 제기한 푸에르토리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재난 이후 복구 노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생태학살과 형법:** 벨기에의 새로운 법안과 환경 범죄를 다루는 EU 지침이 제안되면서 환경 학살(ecocide)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향후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환경 소송과 기후 소송의 시너지 효과:**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환경 소송에 기후 소송 전략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권리 기반 환경 소송에도 기후 관련 주장이 통합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접근 방식의 융합을 반영한다.

서문

지난 6년 동안 Grantham Research Institute는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시리즈에서 매년 스냅샷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각 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 분야의 최신 연구와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2023년에 초점을 맞춘 이번 2024년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 얼마나 많은 사건이, 어디서 제기되었고, 누가 제기했는지에 대한 수치 분석
- 접수된 사례 유형의 동향과 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첫 5개월 동안 제기되거나 결정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해설도 제공한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수치 분석이 미국 이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올해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확장하여 미국 및 '글로벌'(미국 외 지역) 기후 소송의 각 하위 집합을 포함한 수치 분석을 제공하게 되었다(박스 A 참조).

박스 A. 데이터 소스

이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에서 관리하는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이다(부록 참조).

Sabin Center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 하나는 미국에서 주 및 연방 법원에 제기된 모든 기후 소송과 행정 기관에 제기된 일부 소송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모든 기후 소송의 3분의 2 미만이 포함되어 있다.
- 다른 하나는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와 국제 및 지역 법원 및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건 데이터베이스이다.

2021년부터 Sabin Center가 특정 지역 내 소송을 추적하고 기후 소송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지식 공유와 대화에 참여하는 전 세계 학자 및 실무자 그룹인 *Peer Review Network of Global Climate Litigation*을 개최한 덕분에 더욱 많은 지역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 사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지만, 여기서 제공된 데이터가 포괄적이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와 정부 수준, 행위자 유형, 논쟁 유형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교차적인 사례 샘플을 제공하므로, 사례와 국가의 동향과 혁신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기후 변화 소송 정의

본 시리즈에서는 기후변화 소송을 기후변화 과학, 정책 또는 법률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사법 및 준사법 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 정의한다. 이는 Sabin Center가 기후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사건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정의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정량적 분석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 정의에는 기후 변화 문제와 명시적으로 관련된 사건만 포함하여 '기후 변화 관련성'을 판단하는 좁은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 그러나 Sabin Center는 '소송'에 포함되는 절차의 의미에 대하여 더 넓은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이에에는 조사, 국내 및 국제 기관의 소통 내용, 규제 당국에 대한 이의 신청, 기소 및 집행에 대한 요청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소송 절차가 소위 '전략적 소송'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즉, 전략적 소송이란, 기후 행동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과학이나 법률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판례가 존재한다(Peel 및 Osofsky, 2020; Bouwer, 2018; Hilson, 2010 참조). 이러한 판례들에는 불법 삼림 벌채 및 계획 결정과 같은 문제가 포함되는데, 그 결과, 북반구 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기후 소송에 관한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지역과 지역에 대한 기후 위험을 지정하면 특히 남반구 개도국 국가들에서 새로운 기후 소송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Field, 2024).²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접근 방식이 이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빠르게 진화하는 이 분야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발전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소송 사례의 다양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사례 분류

수년에 걸쳐 기후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의 다양성 또한 증가하여 소송을 분류하고 분류할 수 있는 방식 또한 늘어났다. 다양한 유형의 소송 내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법적 주장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전략적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 대해 우려하는 활동가 그룹은 특정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은행의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주제별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삼림 벌채와 관련된 배출을 우려하는 활동가들 역시 동일한 종류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문제의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느냐, 즉 '어떻게 케이크를 자르느냐'에 따라 기후 소송의 동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예: UN환경계획[UNEP], 2023, 대안적 접근 방식 참조).

본 시리즈의 주요 목표는 독자들에게 기후변화 소송의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각 기후 소송의 목표를 소장 등 청구인이 제공한 캠페인 자료에 나타난 대로 평가하고, 당사자의 사법적 구제 요청이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의 기후 행동 목표와 일치하는지, 혹은 반대로 해당 소송의 승소가 특정 기후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기후 목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역사적으로 '규제 찬성' 및 '규제 반대'(Peel 및 Osofsky, 2015) 또는 단순히 '찬성' 및 '반대'(Hilson, 2010)라는 표지가 이러한 소송들에 적용되어 왔으나, 본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구분은 점점 더 미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소송 사례 유형의 추세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를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또는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분류하도록 한다(Setzer 및 Higham, 2022, 2023).

박스 B. 간단히 정의하기

기후 변화 소송: 기후 변화 과학, 정책 또는 법률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법 및 준사법 기관에 제기되는 소송

전략적 소송: 원고가 개별 소송에서의 승소에서 나아가, 기후 행동에 대한 공개 토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소송: 소장 및 캠페인 자료에서 기후 행동 목표에 부합하는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거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기후 적응 및 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송이 기후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 소장 및 캠페인 자료에서 기후 행동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송.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송 중 일부는 기후 행동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행동이 수행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송이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식별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2 남반구 개도국과 '북반구 선진국'의 구분은 경제적 불평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남반구 개도국'은 동질적인 국가 그룹이 아니며 법적 발전 수준과 법적 역량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G77 + 중국 국가 목록을 사용하여 남반구 개도국에 속하는 국가를 구별하였다.

보고서의 구조

1부에서는 소송 제기 연도별 소송 개요, 소송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평가, 기후 소송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에 대한 분석 등 전체 소송 건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소송의 전략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서 사용된 주요 전략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3부에서는 2023년에 제기된 사례 유형에 초점을 맞춰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 사례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 그룹의 미묘한 차이와 다양성을 설명한다.

4부에서는 기후 소송이 법정 밖에서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주체들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후 소송의 향후 동향을 살펴본다.

인용 관련 참고 사항

가능한 경우 텍스트 내 인용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했지만, 아래 링크로 연결되는 별도의 부록에 전체 참조 목록도 제공한다: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publication/global-trends-in-climate-change-litigation-2024-snapshot>

1부: 기후 소송의 글로벌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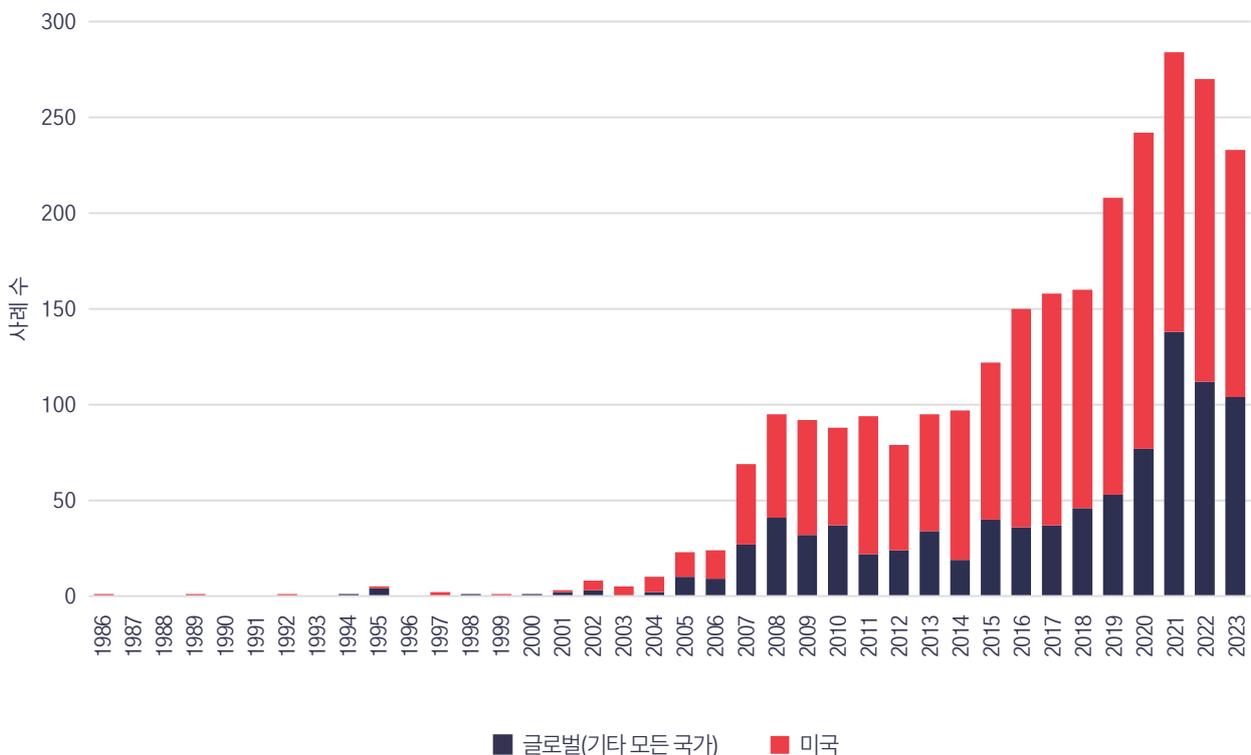
이 섹션에서는 기후 소송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먼저 전체 소송 건수와 신규 소송 제기 속도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관할 권역을 중심으로 소송의 지리적 분류를 제공하고, 남반구 개도국 지역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국제 및 지역 소송의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소송과 관련된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기업 행위자에 대한 기후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기후 소송의 성장으로 인해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분적인 관점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종결된 사건의 유형, 다양한 분쟁의 형태, 다양한 관할권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 등을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기후 소송의 증가

현재 데이터 세트에는 2,666건의 기후 소송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³이 중 약 70%가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이 중 233건은 2023년에 제기되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소송(233건 중 129건)이 제기되었다. 그림 11은 198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외의 소송 건수를 보여준다.

그림 11. 미국 내외 기후 소송 건수, 1986~2023년



3 이 데이터 세트에는 2024년에 접수된 43건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동향을 논의할 때는 2023년 말까지 접수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5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 기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시간적 초점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은 부분적으로는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례 수집 및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수백 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소송 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보급 또는 새로운 화석 연료 인프라의 승인 및 건설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Sabin Center는 이러한 미국 환경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외 지역에서의 소송 증가 속도 둔화는, 데이터 수집 지연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발간된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2022년에 접수된 사례가 222건이었지만, 이후 27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는 감소 추세로 보이는 것이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완만한 정체 추세로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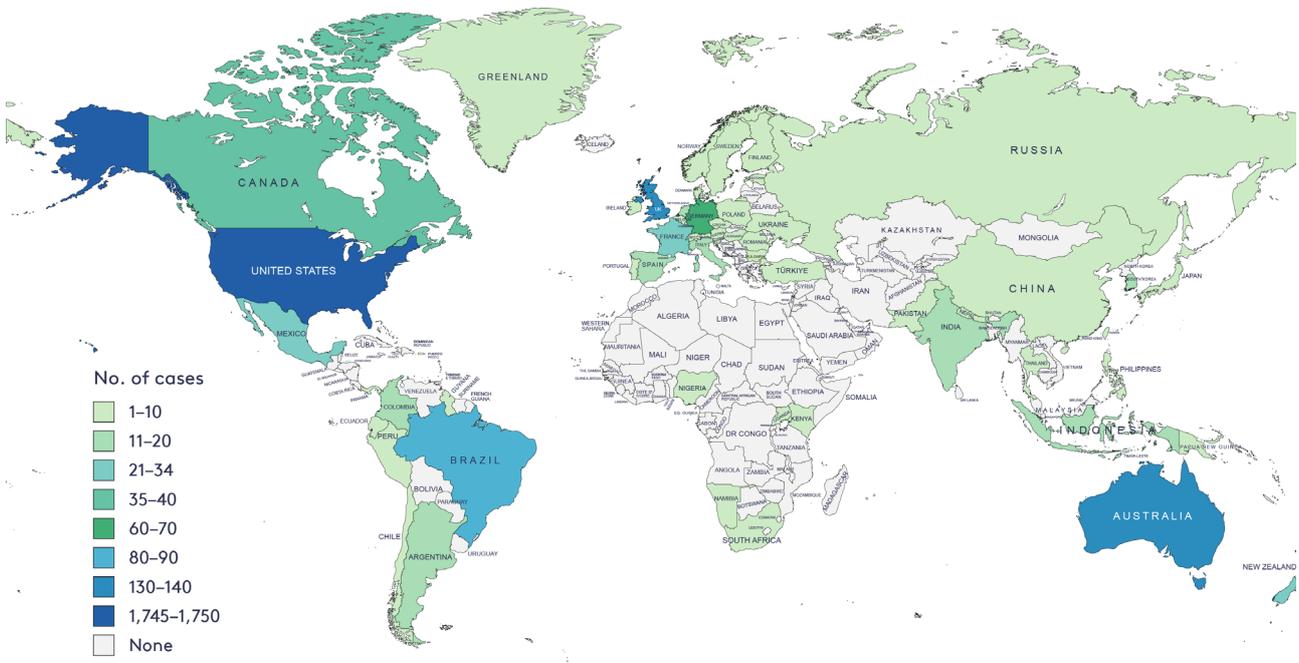
신규 사례의 명백한 감소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기후 문제를 주변적으로만 다루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포착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송 전략이 다양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오래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의 사례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기후 소송

미국은 총 1,745건으로 여전히 기후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다. 그 다음으로 호주에서 132건의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2023년에 접수된 신규 사례는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판 이후 새로운 관할권에서 기후 소송이 확인되었다. 2023년에는 파나마(*Callejas v. Law No 406 - 광산 면허의 위헌성*)와 포르투갈(*Associação Último Recurso v. Portuguese State*)에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헝가리와 나미비아에서 제기된 오래된 소송도 처음으로 확인되어 기후 소송이 기록된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늘어났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전 세계 국가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소송 수



2023년에 가장 많은 소송이 기록된 국가는 영국, 브라질, 독일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2023년에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영국(24건), 브라질(10건), 독일(7건)이다. 이 세 국가 모두 현재 영국은 139건, 브라질은 82건, 독일은 60건으로 총 기록 건수도 높다.

이들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동향과 발전이 관찰된다:

- 영국에서는 기후변화법에 집중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사례, 즉 기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2부에서 논의 예정) 외에도, 영국의 식품 정책에 대한 실패한 도전(*Global Feedback Ltd v.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을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국가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특정 부문별 정책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2부에서 논의 예정).
- 브라질에서 2024년 3월까지 제기된 80건의 기후 소송에 대해 *JUMA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패턴이 발견되었다(Moreira 외, 곧 발표 예정). 검찰이 22건, 시민 사회가 21건, 기타 공공 기관(연방 환경청 포함)이 15건, 정당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 및 기후 소송의 주요 개시 기관이었던 검찰은 이제 소송 제기 건수 면에서 시민사회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주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주를 이룬다. 한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31건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제기된 소송의 절반 이상이 토지 사용과 삼림 문제에 관한 것이며, 정부 기관의 조치 부족과 삼림 벌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비슷한 수로 제기되었다(박스 1.1 참조). 브라질 아마존은 이러한 소송 중 34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주로 삼림 벌채와 관련된 환경 및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법원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피해를 정량화하여 해당 산림의 복구 및 복원을 목표로 한 *IBAMA v. Dieceu Kruger* 소송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화석 연료의 탐사,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25건이나 존재한다. 이 중 12건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13건은 특정 프로젝트의 허가를 문제 삼고 있다.
- 2023년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에서는 기후 관련 법적 소송이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이후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Neubauer 외. v. Germany* 판결(*Setzer 및 Higham, 2023*)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2세대' 소송 중 다수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는 *DUH and BUND v. Germany* 등 사건에서 기후 운동가들이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부문별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연방 기후 보호법에 따라 시작된 이 소송에서는 건물 및 운송 부문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조치의 충분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제안된 정책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정부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된 부문별 목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논의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Bonnemann, 2023; Averchenkova 외, 2024*).

박스 1.1. 산림과 삼림 벌채: 탄소 흡수원, 그 보존 및 소유권이 점점 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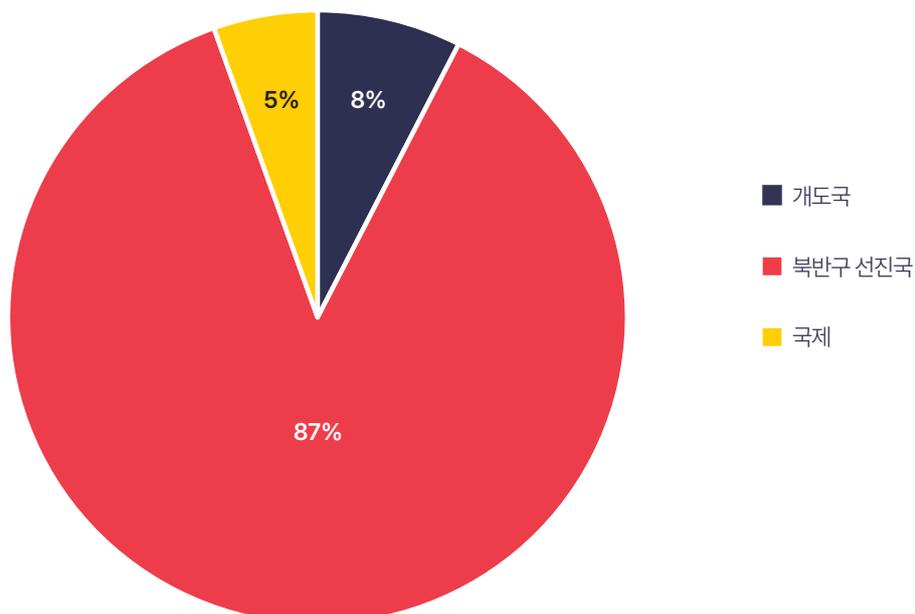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과 제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즉, 넷제로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과 기후변화 논쟁이 결합된 소송이 중요한 법적 조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삼림 벌채와 산림 거버넌스에 관한 소송이 최소 8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Bisiaux 등의 연구 논문은 이러한 사례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결과를 강조한다. 브라질과 미국이 가장 눈에 띄는 소송 제기 지역이다. 대부분의 소송은 기후목표에 동조하는 NGO와 개인이 제기하지만, 기업이 제기하는 기후목표에 일치하지 않는 소송도 몇 건 있다. 이러한 소송의 법적 근거는 환경법, 대기오염 규제, 인권 및 사법을 포괄하는 등 다양하다. 환경법에 근거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 승인에 이의를 제기한다.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포함하여, 2023년 *Comissão Pastoral da Terra and Notre Affaire à Tous v. BNP Paribas* 사건 등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삼림 벌채와 관련된 소송도 몇 건 존재한다.

2023년에는 기후, 산림 보호, 인권 주장이 결합된 소송이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브라질 파라주 검찰청이 여러 기업과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 탄소 채취'라고 불리는 일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용어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을 허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기업은 자발적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불법적으로 생성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 보존 노력과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 보호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

남반구 개도국에서 기후 소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이지만,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한 독특한 사법적 대응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한 국가에서 발생한 200건 이상의 기후 소송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사건의 약 8%를 차지한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북반구 선진국, 남반구 개도국 법원, 국제 및 지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비율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관심과 학술적 연구를 불러일으켰다. 남반구 개도국에 기반을 둔 저자들의 많은 기고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한 문헌이 점점 더 많이 출간되고 있다. 최근 출판물 중에는, 아프리카의 기후 소송이 글로벌 소송에 비해 뒤쳐진다는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 존재한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아프리카의 활동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의 독특하고 다양한 국내 상황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해왔는지를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취할 것을 옹호한다(Bouwer 외., 2024). 또한 Lin 및 Peel(2024)은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남반구 개도국에서 시작된 소송의 법적 전략과 그 예비적 효과를 조사했다. 이와 동시에 Global Network for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는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 문헌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백 개의 출처가 포함되어 있다(Murcott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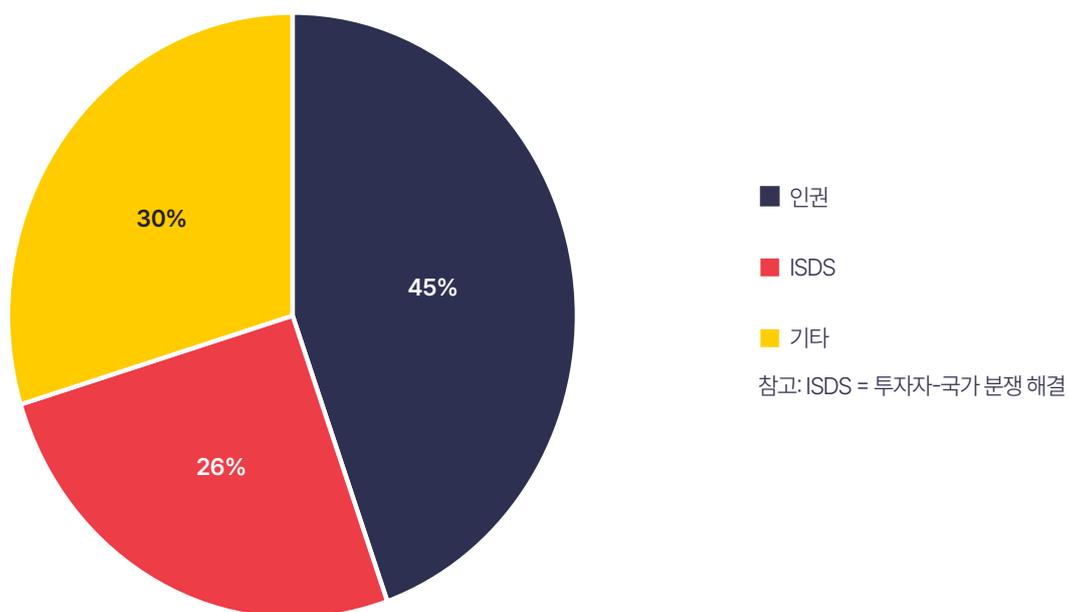
연구에 따르면 일부 남반구 개도국에서는 기후 정책 대응의 수단으로 법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기후 소송을 전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도의 기후 소송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것은 생계, 권리, 생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Ohdedar, 2021; Kumar 및 Naik, 2024). 그러나 인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M.K. Ranjitsinh and Others v. Union of India)에 따라 이러한 의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판결은 인도 헌법 제21조(생명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와 제14조(평등에 대한 기본권)에 근거하여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확립했다(Kumar 및 Naik, 2024).

국제 법원과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판결 및 의견을 요청받고 있다.

전체 사건의 약 5%가 국제 또는 지역 법원, 재판소 및 당국에 제기되었다. 이 중 절반(146건 중 70건)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⁴ 이러한 국제 및 지역 소송 중 9건은 2023년에 제기되었다.

이전 간행물에서 논의한 바 있는 유럽연합의 맥락을 벗어나면(Higham 외, 2023 참조), 국제 사건에서 몇 가지 주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국제 및 지역 인권 중심 사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많은 중재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지표 수치임), '기타' 유형의 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UNFCCC의 분쟁 해결 기구 포함)의 분류를 보여준다.

그림 1.4. 국제 및 지역 사건의 재판소 유형별 분류(EU 법원 사건 제외)



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의 사법부로, 유럽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 두 개의 별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럽평의회 국제 재판소인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70건이라는 수치에는 European Ombudsman에 제기된 사건 1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어떤 유형의 법정보다 더 많은 국제 기후 소송이 인권 재판소에 제기된다.

첫째, 현재까지 접수된 국제 사건 및 진정 중 약 45%가 국제 인권 법원, 기구 및 재판소와 관련된 사건이다.⁵ 이러한 사례는 인권 주장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며,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3건의 사건을 포함한다(2부에서 자세히 논의 예정). 이 수치에는 미주인권재판소(IACtHR)의 권고적 의견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인 인권 재판소 외 다른 곳에서 제기된 사건에서도 인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미주인권재판소(IACtHR)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을 포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하는 두 건의 요청이 제출되었다. 이에 앞서 2022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도 이러한 요청이 제출된 사실이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법적 요청은 그 범위와 잠재적 영향력에서 크게 다르다. 각 법원은 고유한 관할권에 따라 운영되며 절차와 기능이 다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국가의 의무와 기후 관련 피해의 영향을 정의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 세계적 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ACtHR는 미주 지역 내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TLOS는 해양 오염 방지와 해양 환경 보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주정부 및 일반 대중의 참여는 기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ITLOS의 자문 과정에는 34개 주와 9개 정부 간 기구(Tigre 및 Silverman-Roati, 2023)의 성명이 제출되었다. IACtHR에서도 또한 기록적인 참여가 관찰되었는데, 국가, 국제기구, NGO 및 개인이 제출한 260건의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었다. ICJ는 주로 국가로부터 제출되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단체로부터도 제출된 의견서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91건의 서면 진술서를 접수받았다.

2024년 5월 21일, ITLOS는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박스 1.2 참조). IACtHR 및 ICJ 의견은 각각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견의 광범위한 의미는 아직 불분명하며, 그 영향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법적, 도덕적 무게를 지니고 있어 잠재적으로 정부가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고 논쟁적인 소송의 발판이 될 수 있다(Sthoeger, 2023).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적 의견을 기후에 관한 국가의 인권 의무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제출된 의견에는 중요한 인권 주장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LOS 의견은 인권에 대해 지나가는 언급만 했다. 모든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기후 공약을 표현할 수도 있다(Hamilton, 2024). 다른 이들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거나 기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확성 부족이나 월권을 우려하기도 한다(Bodansky, 2023).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국가 차원과 관련 지역 또는 국제 법원에서 향후 소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5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UN 특별 보고관의 커뮤니케이션과 UN 인권위원회 및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서가 포함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동아프리카인권재판소 등 지역 인권기구에 제기된 사건도 포함된다.

박스 1.2. '국가는 기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초의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의 답변

ITLOS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대기 중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양 오염'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기후 변화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UNCLOS에 따른 당사국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

ITLOS의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ITLOS는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을 구성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Voigt, 2024). UNCLOS에 따라 이제 국가는 배출을 방지, 감축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생태계 건강과 해양 환경의 자연적 균형을 유지 및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ITLOS는 UNFCCC 및 파리 협정과 같은 UN 기후 조약과 함께 기후 변화 및 그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의 법적 근거로서 UNCLOS를 확립했다. 그러나 ITLOS는 점진적으로 야심찬 NDC를 가진 국가가 UNCLOS 194.1 및 194.2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Voigt, 2024).

둘째, ITLOS는 UNCLOS와 파리 협정에 따른 의무가 별개이지만 상호 강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eel, 2024). 국가는 파리 협정 결과와 관계없이 UNCLOS에서 직접 파생된 일련의 기후 보호 의무(즉, 194조, 207조 및 212조에 따라)를 가지고 있다(Rocha, 2024). 이러한 의무에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 해당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시행, 환경 영향 평가 실시, 국내 차원의 국제 규칙 및 표준 이행, 다른 국가와의 글로벌 및 지역 협력 의무 이행, 취약한 국가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ITLOS는 국가의 실사 의무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된 의무를 정의하기 어렵긴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제 사법 감독 하에 있음을 확인했다(Rocha, 2024). 재판소는 과학 지식이 발전하고 특정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사의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ITLOS의 의견은 다른 권고적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 관련 의무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Silverman-Roati 및 Bönnemann, 2024). 그러나 본 요청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요청이었으며, 기후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특히, UN 총회는 ICJ에 기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 국민, 개인에 대한 법적 결과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ICJ에서 다루질 가능성이 높다(Wewerinke-Singh 및 Viñuales, 2024).

궁극적으로 ITLOS의 자문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기후 관련 의무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법 및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제 기후 소송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국제 기후 소송의 또 다른 추세는 투자법,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 및 국제 무역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SDS 사례

투자법과 관련된 절차는 국가가 부당하게 투자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사법 소송이 아니라 중재인 판정단 앞에서 진행되는 중재이며, 기밀 유지 조건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이 제도는 해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환경 및 공중보건 정책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규제 냉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Tienharaa, 2017). 기후변화 관점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투자 협정 중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 50여 개국이 서명한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으로, 이는 에너지 협력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 투자에 대한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조약에 해당한다.

현재 Sabin Center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외 지역 국제 소송의 약 30%에 해당하는 19건의 ISDS 소송이 등록되어 있다. 약 7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을 분석한 최근 Fermeiglia 외(2024)도 존재한다. 특히, 독일 에너지 기업 RWE와 Uniper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제기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 관련 중재 요청은 모두 2023년에 중단되었다(Verbeek 2023; IISD, 2022). 이러한 상황은 EU 회원국 간 중재 청구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당시 독일 정부가 구제금융 합의의 일환으로 Uniper에 조건을 설정한 이후에 발생했다.

각국 정부가 기후 정책에 대한 현재의 투자 조약 해석이 제기하는 문제를 점점 더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ECD, 2023). 중요한 움직임으로 11개 EU 회원국과 영국이 위 에너지 헌장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EU도 이를 따를 예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 조항(sunset clause)'은 여전히 유효하여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CAN Europe, 2024).

무역 분쟁

국제 기후 소송 중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의 무역 분쟁은 상대적으로 잘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해당한다. 이 기구에는 최소 3건의 기후 관련 무역 분쟁이 기록되어 있으며(Setzer 및 Higham, 2022), 2024년 3월에는 이 중 한 건이 사건을 검토하도록 임명된 패널로부터 초기 판정을 받았다. 무역 분쟁은 한 국가가 WTO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조치를 도입할 때 종종 발생한다. 문제의 정책 조치가 해당 국가의 기후 정책 대응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경우 이를 '기후 관련' 사건으로 간주한다. 해당 사건(DS-600)은 바이오 연료로 팜유 사용을 금지하는 EU의 조치(재시행된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에 따라 시행)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 말레이시아의 제소에 관한 것이다. 패널 판정은 RED II 프레임워크의 이행 요소가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패널이 확인한 사안은 대부분 EU 법률에 따라 어쨌든 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EU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Directorate-General for Trade, 2024).

원고와 피고: 기후 소송의 주요 당사자

대부분의 기후 소송은 NGO와 개인이 제기하지만 정부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전 보고서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후 소송은 NGO 또는 개인이 제기하거나 이러한 주체와 다른 주체들이 함께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여서, 미국 및 전 세계 모든 소송의 70% 이상이 개인, NGO 또는 두 주체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 변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시민 사회 주체들이 법원을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며, 전략적 기후 소송의 증가를 반영한다(Kotze 외., 2023).

그러나 미국에서는 2023년에 제기된 소송의 거의 20%가 원고 중 정부 기관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연방 기후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 정부(예: 박스 3.1에서 언급한 SEC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중 일부는 주 정부에서 제기)와 2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유 및 가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 정부도 포함된다. 브라질의 정당과 검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주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이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에서 일반적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

기업과 무역 협회 역시 상당수의 기후 변화 소송을 제기한다. 2023년에 제기된 전체 소송의 13%는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기업이 미국 소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지난 몇 년간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우선권 확보 등 기후 친화적 의제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기후 소송을 상업적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사례는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스페인의 재생 에너지 회사인 Iberdrola는 주요 화석 연료 회사인 Repsol이 기후위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Iberdrola and others v. Repsol). 또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수의 중요한 소송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는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기후 운동가들이 2023년 4월 암스테르담의 ING 본사 앞에서 은행에 기후 위기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Milieudefensie/Muzi Ndiwen

기업 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업 기후 소송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기후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다(Setzer 및 Higham, 2021). 이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제기된 전체 소송 중 70% 이상이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고, 기업이 피고인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과 글로벌 사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의 85%에 달하는 사건에서 정부가 피고가 된 반면, 기업이 피고가 된 사건은 15%에 불과했다. 글로벌 사건의 경우, 거의 60%의 사건에서 정부가 피고로 참여했으며, 40%는 기업 행위자가 피고로 참여했다.⁶

이처럼 기업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사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와 활동가 모두 기업의 기후 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출판물과 프로젝트가 많이 등장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Richard Heede가 처음 공개한 탄소 메이저 데이터 세트(Carbon Majors dataset)는 2024년에 InfluenceMap과의 협업을 통해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출시되었다. 이 플랫폼은 1854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량 데이터를 포괄하며, 보여준다전 세계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업체의 집중된 CO2 배출원은 소수의 기업 및 국가 생산 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Carbon Majors의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배출량의 70%가 78개 기업에 기인하며, 그 중 단지 19개 기업만이 해당 배출량의 절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파리 협정 이후 57개 기업 및 국가 기관이 이러한 배출량의 80%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배출자 그룹이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증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Brit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가 17개국의 국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톨박스(BIICL, 2024)를 만든 프로젝트는, 소송의 원인, 절차 및 증거, 구제책을 모색하는 전 세계의 소송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기후 소송의 법적 경로, 도전 과제 및 기회를 식별한다.
- Milieudefensie(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사건의 보고서 '위험선 방어'(Cox 및 Riej, 2022) 등 성공적인 기후 소송에 참여한 소송가들의 출판물, 톨킷 및 매뉴얼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는 기업 소송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Milieudefensie 는 2021년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Shell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받은 후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Milieudefensie v. Shell* 참조).

현재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기후 문제로 법정에서 서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분석 결과, 2015년(파리 협정이 채택된 해)부터 2023년까지 기업 및 무역 협회를 상대로 약 230건의 전략적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전략적 소송에 대한 논의는 2부 참조).

기업에 대한 소송은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 부문(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연료의 생산과 연소 모두)에 집중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은 대상 산업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전통적인 초점 외에도 항공사, 식음료 산업,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의 기업에 대한 법적 도전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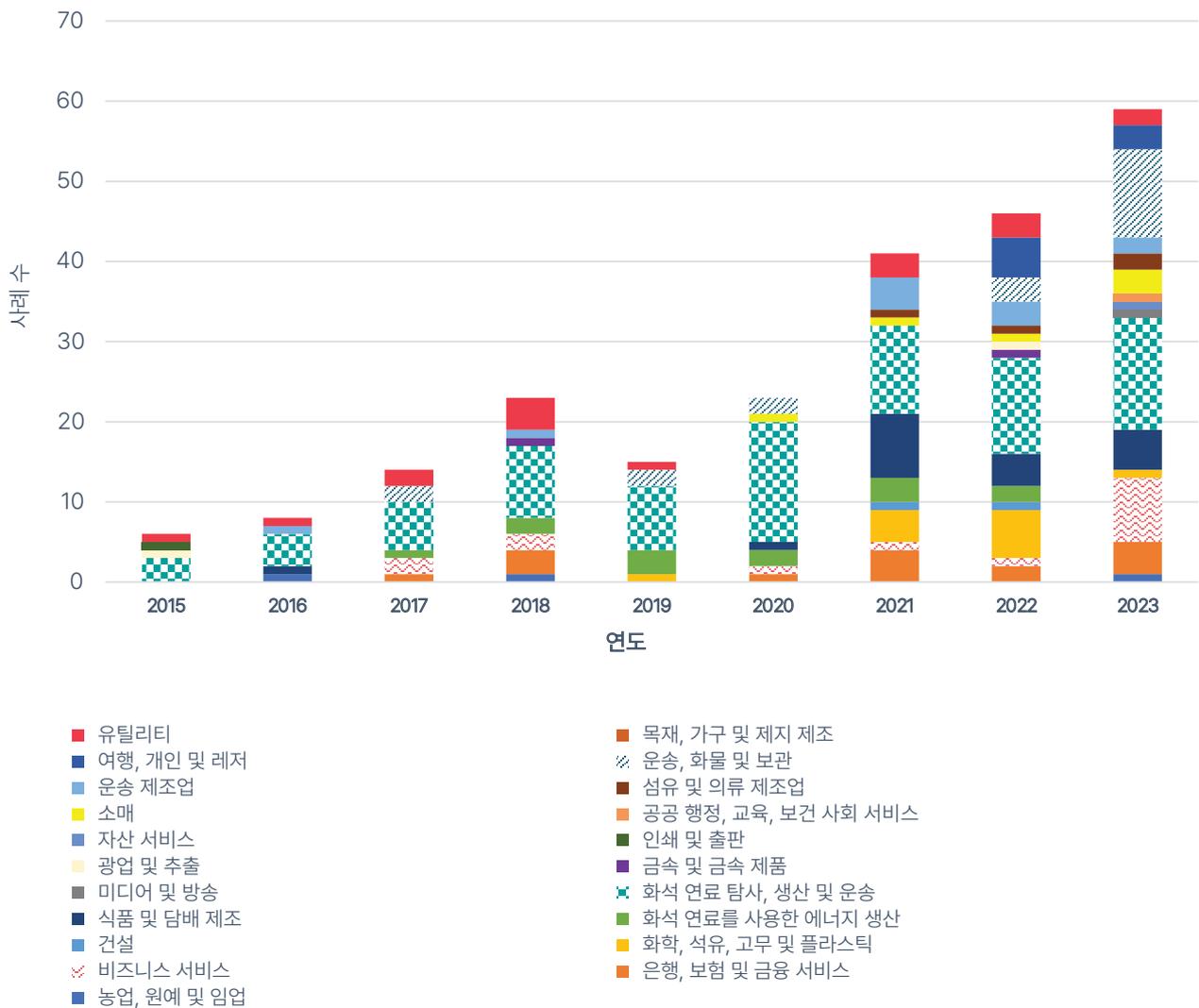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화석 연료 회사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 및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멀티노마 카운티가 화석 연료 업계의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목할 만한 소송에서, 해당 정부는 컨설팅 회사 McKinsey가 피고로 참여하여 업계의 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County of Multnomah v. Exxon Mobil Corp.). 또한 최근 영국과 네덜란드의 규제 기관에서는 Saudi Aramco와 파트너십을 맺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Financial Times 지에 대해 회사의 환경 영향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일부 소송에는 정부와 기업 행위자가 모두 피고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 간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추세외 또 다른 측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거나 화석 연료 사용에 의존하는 새로운 분야와 관련이 있다. 작년의 예로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기후위험 소송이 있다. 영국의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Air France, Lufthansa and Etihad*의 광고가 항공 여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을 오도한다는 우려로 광고를 금지했다. 2023년 오스트리아 법원은 *Austrian Airlines AG*가 비엔나-베니스 간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하는 탄소 중립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대중을 오도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림 벌채, 농업 및 관련 식음료 공급망 등 화석 연료 생산 및 연소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기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소송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법무장관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 공약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소고기 생산업체를 고소한 사건(*People v. JBS USA Food Co.*)이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메탄 메이저' 사건의 움직임 역시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ay 및 Poston, 2024).

그림 1.5. 부문별 전략적 기후 대응 사례의 대상 기업 수, 2015-2023년



이러한 기업 기후 소송 중 일부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진화하는 기준과 상호 강화되는 관계다(Rajavuori 외, 2023 참조). 2023년에 발표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는 기업 기후 실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기업 행동과 OECD 국가 및 그 외 지역의 의무 규정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 이전 2011년 버전보다 훨씬 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다(Aristova 외, 2024).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서에 포함된 '연성법' 기준의 일부 측면은 현재 적어도 EU 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에 대해 의무 요건으로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⁷

이번 논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EU의 새로운 **삼림 벌채 규정(EUDR)**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다. EUDR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업이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콩, 목재 등 다양한 상품의 원산지를 실사하여 삼림 파괴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실사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2024년 4월 유럽 의회에서 CSDDD가 채택되었으며, 회원국은 2년 내에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SDDD는 대기업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지침은 프랑스의 선관주의 의무법(Duty of Vigilance Act),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등 이전의 국가 및 EU 차원의 규정을 기반으로 EU 회원국 전반의 실사 요건을 조화시키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위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WWF, 2024년)과는 달리, 금융기관 일부를 적용 면제하고, 원안에 포함되었던 기업의 1/3에만 적용되는 CSDDD의 최종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주요 경제권에서 기업들이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회원국들은 2년 내에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시기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다소 불확실한 시기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기업과 시민 사회 단체가 새로운 요건이 실제로 어떤 것을 수반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기후 관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Higham 외, 2023).

기후 소송의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

본 시리즈의 이전 보고서에서는 기록된 글로벌 사건의 사법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 바 있다. 이 분석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의 예비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이 법원을 거치면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⁸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50% 이상이 기후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약 57%에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기후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기후 소송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사례에 대한 이전 분석에 따르면 기후 행동을 방해하거나 "반규제적" 입장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McCormick 외, 2018), 최근 몇 년간 미국 사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사례와 글로벌 사례를 함께 분석하여 아래 2부에서 논의된 다양한 소송 전략의 성공에 있어 뚜렷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의 결과는 본문의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다.

7 OECD 가이드라인 자체는 또 다른 연성법 표준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Aristova 외, 2024 참조).

8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2부.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 사례

2부에서는 2023년에 제기되거나 결정된 소송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적 소송의 주요 진전 사항을 논의한다. 2015년부터 제기된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 전년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소송 전략 유형을 사용하여 수치를 업데이트한 다음,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서 관찰된 추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송 전략

본 보고서 시리즈의 주요 목적은 법과 법원이 다양한 기후 행동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례를 전략적, 준전략적 또는 비전략적 소송 사례로 분류한다(박스 2.1 참조). 그 다음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적 소송 사례를 해당 소송에서 사용된 전략 유형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Setzer 및 Higham, 2022).

박스 2.1. 전략적 및 준전략적 소송 사례 파악하기

전략적 소송 사건을 식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특히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2023년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식별에 있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원고의 신원.** 전략적 소송에서는 신중하게 설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원고가 선정된다(Peel 및 Markey-Towler, 2021). 대부분의 전략적 기후 소송은 비정부기구(NGO)와 개인 운동가가 제기하지만, 국회의원, 정당 또는 정부 대표도 원고가 될 수도 있다. 비정부기구(NGO)와 그 소속 변호사는 지역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우려 사항에 대한 법적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Okoth 및 Odaga, 2021). '활동 변호사'라는 용어는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소송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ummings, 2017).
- **피고의 신원.** 전략적 기후 소송은 종종 기후 문제에 가장 큰 직접적 기여를 하는 행위자(예: 입법을 할 수 있는 정부 및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자)와 기후 행동 또는 기후 위험에 대한 고려에 있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자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화석 연료 면허 및 허가를 부여하는 공공 기관, 고배출 기업이 핵심 활동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 등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 고배출 활동에 대한 가치 사슬의 기능에 중요한 행위자를 상대로 전략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소송의 목표.** 전략적 소송은 개별 소송의 결과를 넘어 장기적인 정책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ouwer 및 Setzer, 2020). 이러한 소송은 종종 개별 소송 당사자의 이해관계보다 더 광범위한 구제책을 모색하여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친다(Peel 및 Markey-Towler, 2021). 이러한 소송의 목표와 전략은 남반구 개도국과 북반구 선진국의 관할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종종 국가 지도자들이 형성한 정치적, 법적 환경을 반영한다(예: 미국 트럼프 시대의 기후 소송 - Gerrard와 McTieman, 2018, 브라질 볼소나루 시대의 소송 - Tigre와 Setzer, 2024 참조).
- **소송이 더 큰 퍼즐의 일부인 경우.** 전략적 소송은 하나 또는 여러 단체의 광범위한 옹호 전략의 일부이며(Eilstrup-Sangiovanni, 2019), 종종 법원 밖의 노력을 보완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정부기구(NGO)가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로비 또는 압력을 가하거나, 대상 기업이나 규제 기관에 편지를 보내거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후 소송 운동은 또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지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초국가적 기후 소송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있다(Iyengar, 2023). 언론 보도와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종종 이 큰 퍼즐의 또 다른 부분이 된다

아래에서는 2023년에 제기된 전략적 및 준전략적 소송에서 확인된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를 표 2.1에 요약하여 주요 소송 전개 사례와 함께 제공한다. 전략 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고 소송 당사자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의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는 소송의 경우 준전략적 소송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기후를 해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많은 '현장 특수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공동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변론은 기후 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는 영국 남동부 웨스트서섹스의 뛰어난 자연경관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영국 법률에 따라 지정)에서 탄화수소 탐사를 허용하는 허가 승인에 대해 지역 영향과 더 광범위한 기후 영향을 근거로 반대했다(*Frack Free Balcombe Residents Association v. Secretary of State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고 주목할 만한 사건 유형, 즉 Bouwer(2018)가 '매력적인' 사건이라고 부른 사건의 발전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중대한 잠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사례들이 미처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기후목표에 일치하는 소송 사례의 유형은 작년과 그 이전에 제기된 다양한 종류의 전략 사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또한 이 유형은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 사례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을 숨기고 있다.



영국 웨스트서섹스주 발콤에 있는 쿼드릴라 시추 현장의 파쇄 반대 운동가들.

사진: Sheila/Flickr.

표 2.1.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 전략의 유형과 2023년 각 전략을 채택한 소송의 수

전략 및 정의	소송 사례 수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의 예
<p>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목표 및 정책의 야심 또는 이행에 도전하는 사례</p>	<p>2023년 15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2015년 이후 전 세계에서 1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전체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p>	<p>VZW Klimaatzaak v. Kingdom of Belgium 외</p> <p>Comunidad aborigen de Santuario de Tres Pozos 외 v. Jujuy Province</p> <p>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ECtHR)</p>
<p>기후 고려 사례 통합 소송: 특정 유해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정책 결정에서 기후 문제를 주류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후 고려사항, 표준 또는 원칙을 특정 결정 또는 부문별 정책에 통합하려는 사례</p>	<p>2023년 97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지금까지 가장 큰 범주에 속하는 이 전략을 사용한 소송은 기후 소송 관련 문헌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¹</p>	<p>Healthy Gulf v. Haland</p> <p>IDLADS v. MINAM (보증기금 집행 소송)</p>
<p>오염자 배상 소송: 기후 변화의 유해한 영향에 기여한 혐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p>	<p>2023년 5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2015년 이후 3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했다.</p>	<p>Falys v. Total</p> <p>People v. Exxon Mobil Corp (California 사건)</p>
<p>기업 프레임워크 소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그룹 차원의 정책, 기업 지배구조 및 의사 결정에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이 높은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p>	<p>2023년에 접수된 신규 소송 3건</p> <p>현재까지 22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모두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p>	<p>Smith v. Fonterra</p> <p>Falys v. Total</p>
<p>적응 실패 소송: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나 기업에 이익을 제기하는 사례</p>	<p>2023년에 8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2015년 이후 이러한 사례는 64건이 기록되었다.</p>	<p>Healthy Gulf v. Secretary, Louisian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p> <p>Comité Dialogo Ambiental v.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p>

전략 및 정의	소송 사례 수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의 예
<p>전환 리스크 소송: 이사, 임원 및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다른 사람들이 전환 리스크를 (잘못) 관리한 사례²</p>	<p>2023년에 접수된 신규 사건 1건</p> <p>2015년 이후 이러한 사례는 17건에 불과하지만, 반전략적 또는 비전략적 성격의 사례의 증가를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p>	<p>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p> <p>Métamorphose v. TotalEnergies</p>
<p>기후위성 소송: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부 또는 기업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p>	<p>2023년 47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현재까지 14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p>	<p>FossilVrij NL v. KLM</p> <p>Opportunity Green의 크루즈 사업자에 대한 ASA 소송</p>
<p>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기후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재정 흐름에 도전하는 사례</p>	<p>2023년에 6건의 신규 소송 제기</p> <p>2015년 이후 현재까지 33건의 소송이 접수되었다.</p>	<p>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및 13개 금융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p> <p>Jubilee v. EFA and NAIF</p>

참고 사항 1. 시간 제약으로 인해 미국에서 '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례'의 전체 목록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제기된 모든 사례의 총 수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부록 참조). 하지만 우리는 해당 유형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활용되는 소송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2. '전환 리스크 사례'는 2023년 보고서부터 새롭게 도입된 범주다. 여기에는 이전에 '개인 책임' 사례로 설명된 대부분의 사례가 포함되지만, 정부나 기업 내에서 권력심 가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는 제외된다

A.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은 언론과 학술 문헌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기후 사례 중 하나다. 우리는 이를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목표 및 정책의 의욕이나 이행에 도전하는 사례로 정의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의 부재, 부적절성 또는 설계에 관한 '의욕 사건'과 기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 보호 조치의 집행에 관한 '집행 사건'로 크게 나눌 수 있다(Higham 외., 2022). 해당 유형은 종종 기후변화 기본법의 유효성 또는 해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종종 파리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소송 당사자들은 기후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광범위한 운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권리에 근거한 주장들

종종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은 국제 및 지역 조약, 헌법상 권리, 법령에 명시된 인권에 근거한 인권 논거에 근거한다. 인권에 기반한 기후 소송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취약성을 부각한다(Peel 및 Osofsky, 2020; Savaresi 및 Setzer, 2022; Rodríguez-Garavito, 2022; Kumar 및 Naik, 2024).⁹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인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2부 E의 박스 2.7 참조).

올해에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KlimaSeniorinnen and ors. v. Switzerland). 이 판결은 2024년 4월 Carême v. France and Duarte Ag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외 32인 사건에 대한 판결과 함께 선고되었다(박스 2.2 참조).

벨기에 항소법원이 연방 정부와 플랑드르 및 브뤼셀 지방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할 것을 명령한 VZW Klimaatzaak v. Kingdom of Belgium 외 사건도 이 범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및 Neubauer 외. v. Germany 사건에 이어 법원이 정부가 최소한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세 번째 사례로, 동일한 결론이 이번 KlimaSeniorinnen 판결을 통해 재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 앞에서 KlimaSeniorinnen의 대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Miriam Künzle/Ex-Press/Greenpeace

9 NYU 로스쿨의 Climate Law Accelerator *CLX database*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지역 및 국제 법원에 제기된 301건의 기후 관련 인권 소송을 보고 하며, 다양한 글로벌 소송 환경을 보여준다. 취리히 대학교의 *CRRP 기후 인권 데이터베이스*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116건의 소송을 포함하고 있다.

박스 2.2. 기후에 대한 국가의 행동 의무에 대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주요 결정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권리 기반 기후 소송 분야를 크게 발전시킨 세 가지 핵심 판결을 내렸다. 이 중 *KlimaSeniorinnen and Others v. Switzerland* 판결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중요한 판결로 부상했다. 반면, *Carême v. France and Duarte Ag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외 32인 사건은 '피해자성 결여'(Carême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Torre-Schaub, 2024 참조), 국내 구제수단 소진 실패, 영향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이런 종류의 기후 적응 사건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ECtHR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Duarte Agostinho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Heri, 202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후 소송에 내재된 절차적, 실제적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가 인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를 공고히 했다. 이 판결은 스위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강조했다.

KlimaSeniorinnen 판결은 헤이그 지방법원이 내린 획기적인 판결인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사건 판결에 이어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등 이전 국내 사법 판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Urgenda 판결은 네덜란드 정부에 당시의 과학적 합의에 더 부합하도록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 판결은 "원칙적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가 배출 감축 경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갔다. 특히, 법원은 '탄소 예산'의 개념을 국가의 필수 도구로 확정하고, 이러한 예산이 기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배출량을 명확하게 정량화하도록 의무화했다(Hilson, 2024). 해당 판결의 이러한 판시 부분은 국가가 강력한 중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최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limaSeniorinnen 판결은 기후 거버넌스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부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러 관할권에서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Milanovic, 2024), 이것이 ECHR 서명국들이 기후법을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Abel, 2024). 또한, 유럽사법재판소가 구상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각국의 입법적 기후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Higham 외., 2024).

이 판결은 향후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책임과 인권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것이다. 기후 행동에 관한 국가의 인권 의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전 세계 법원의 선례가 될 수 있는 KlimaSeniorinnen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국가의 법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환경 보호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다.

2023년에 루마니아와 포르투갈에서 인권에 근거한 새로운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제기되어 이러한 소송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omunidad aborigen de Santuario de Tres Pozos 외. v. Jujuy Province*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후후이주의 원주민 커뮤니티는 새로운 주 헌법이 국가 기후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대중의 참여, 생태계,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후후이주 헌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모든 프레임워크 소송이 인권 관련 주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워크 소송에서 인권 관련 주장에 의존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권리 기반 소송의 이용 가능성과 범위가 모두 제한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소송 담당자들이 대안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작년에는 호주 불법행위법에 근거를 둔 *Pabai Pabai v. Commonwealth of Australia*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호주의 소송 담당자들은 인권을 법령 해석의 렌즈로 사용하고, 계획 또는 환경법 위반을 식별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등 인권 주장을 상황에 더 적합하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해 왔다(Preston 및 Silbert, 2023).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법률가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 환경을 탐색하는 동시에, 초국가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반영한다.

또한 넷제로 법안의 부실한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도 있다. 여기에는 환경 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 ClientEarth 및 the Good Law Project가 영국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행동 계획에 대해 제기한 '*R(oao Friends of the Earth)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이하 '넷제로 사건')' 소송이 포함된다. 이 사건은 같은 단체들이 진행한 2022년 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22년 판결에서는 정부가 영국의 6차 탄소 예산과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인 넷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그 이유로 해당 전략이 필요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정부에 의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된 후, 비정부기구(NGO)들은 수정된 전략이 기존 전략의 결함들을 답습하고 있으며,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기후변화법(Climatic Change Act)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정부는 다시 한 번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R(Packham)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and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사건 역시 2023년 9월에 발표된 영국의 "넷제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해당 접근법에서는 기존 공약을 이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 및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전에 발표된 정책 조치를 철회하였다. 이와 유사한 넷제로 법안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지속적인 도전과 관련된 패턴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Higham 외, 2022; Merner 외, 2023 참조).

정부의 넷제로 목표의 무결성, 즉 명확성과 그 실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Maxwell 외, 2024). 이러한 소송의 주된 우려 사항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된 불투명성과 세부 정보 부족에 대한 것이다.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유망한 기술에 불과한 CDR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tuart-Smith 외, 2023). 독일과 포르투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에 배출 감축 목표와 별도로 CDR 목표를 채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진화하는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환경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넷제로 약속이 전 세계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법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탄소 제거 기술을 언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배출 감축이 가능했을 경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상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박스 2.3.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결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2015년부터 제기된 110건의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중 약 60%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건의 사법적 결정(일부 사건의 경우 본안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 포함)이 내려졌다. 해당 결정 중 약 3분의 1에서는 기후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나머지 3분의 2에서는 기존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관점에서 기후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다.¹⁰

예를 들어, 2024년 2월 로마 법원은 부적절한 CO2 배출 감축 노력으로 기소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후 정책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이는 사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탈리아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사항을 행정법원에 전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인권 관련 법적 의무를 집행하는 것과 기후 거버넌스에서 입법 영역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사법적 균형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치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기후 행동에 미친 영향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Neubauer 외. v. Germany* 판결 이후 독일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2건의 유사한 소송이 실패한 사례에 포함되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연방헌법재판소의 단일한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의 개정으로 이어진 Neubauer 판결이 이러한 지방 정부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존재한다(Averchenkova 외, 2024).

2023년에 발표된 중요한 판결 중에는 미국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 운동의 '첫 번째 큰 승리'로 묘사되는 *Held v. Montana*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다(Bookman, 2023).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환경성 검토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이른바 'MEPA 제한'의 유효성에 대하여, 주 헌법에 명시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MEPA 제한을 무효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정 명령을 구하는 프레임워크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 당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더 광범위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도 구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좁은 근거에서 판결되었지만, 이 판결은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주장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주장과 증거의 유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Bookman, 2023). 다만,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며 몬태나주 대법원에 피고 정부의 항소가 제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소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특정 중요 사건의 영향력과 다른 사건 및 잠재적 사건과의 상호 작용보다는 직접적인 결과의 전체 수에 기반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 강조된다.

10 청구인들의 기본 주장이 정당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이 보고서 시리즈의 범위를 벗어난다.

B. 의사 결정에 대한 기후 고려사항의 통합

기후 고려사항을 의사 결정에 통합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 중 가장 큰 그룹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특정 해로운 정책과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후 문제를 정책 결정에 주류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후 고려사항, 표준 또는 원칙을 주어진 결정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기후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개발된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기후 정책 의욕 수준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활동 및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허가 및 인허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 중 일부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페루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협회 (IDLADS)는 페루에서 환경부가 기후변화법에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요구하는 조항과 산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 등 4가지 개별 조항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위에서 논의한 영국의 넷제로 전략에 대한 도전과 유사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주요 질문 중 하나는, 화석 연료 탐사 및 공급의 확대 또는 새로운 화석 연료 에너지 발전 시설의 개발이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소송이 새로운 화석 연료 생산 및 화석 연료 발전의 허가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데, 이는 주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절성을 근거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중단될 만큼 소송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초기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프로젝트 제안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출하고 추가 허가를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박스 2.4 참조). 다만, 이러한 전략이 새로운 화석 연료 생산과 화석 에너지 발전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사례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아래 오염자 부담금 소송 사례와 기후위성 사례에 대한 논의 참조).



기후 보호를 위한 시니어 여성 모임인 클라이마시니어이벤(KlimaSeniorinnen)이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Greenpeace/Piero Good

박스 2.4. 노르웨이의 새로운 석유 추출에 반대하는 소송: 결국 목표에 도달하다.

2016년에 제기된 *Greenpeace Nordic Ass'n v.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People v. Arctic Oil 사건)*의 초기 기후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은 노르웨이가 바렌트해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승인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을 무시한 불법이며 노르웨이 헌법 1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20년 노르웨이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정부 조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는 해외에서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2023년, 같은 원고들이 제기한 *Greenpeace Nordic and Nature and Youth v. Energy Ministry (The North Sea Fields 사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북해 유전 및 가스전 3곳의 환경 평가에서 Scope 3 배출량(다른 사람이 석유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간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24년 1월 오슬로 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Scope 3 배출량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인용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개발로 인해 노르웨이의 젊은이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여 환경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환경성 평가에서 Scope 3 배출을 성공적으로 다룬 첫 번째 소송 사례일 것이다.

*Bouwer 및 Setzer (2020)*는 이러한 소송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인 '목표 달성' 사례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인 소송이 단발성 소송을 넘어 어떻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C. 오염자 부담 소송

오염자 부담 소송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혐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적정 비용에 대한 기여 또는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소송은 종종 기후위성 논쟁 및/또는 기업 프레임워크 논쟁과 결합되기도 한다.

기후 책임 소송

지금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오염자 부담 소송은 미국의 주정부들이 소위 탄소메이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기후 책임 소송'이다(*Center for Climate Integrity, 2024년 참조*). 화석 연료 회사들로 하여금 기후 변화 적응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이러한 소송 대부분에서는, 탄소메이저가 허위 정보 캠페인에 관여함으로써 야기된 피해에 대해 기후위성 주장이 제기된다. 해당 소송 유형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 주장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피고들(탄소메이저)의 제품 제조라기보다는 피고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2023년 미국 대법원이 그 심리를 주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연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이후로 이 유형 사건들의 심리는 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Setzer와 Higham, 2023). 피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송 진행이 허용되는 청구 범위는 더욱 좁아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델라웨어 주 법원*은 델라웨어 주에서 제기한 소송의 범위를 해당 주 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다루도록 제한했다. *하와이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기로 하는 첫 판결을 내렸고, 이는 원고로 하여금 더욱 광범위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나, 피고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미국 대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러한 항소는 이러한 유형 소송의 재판 심리가 열리기까지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 중 일부는 '증거 개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피고 기업들의 내부 문서가 원고들

및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되며, 이는 2024년 4월에 발표된 **의회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기후위기 부정, 허위 정보, 이중 발언"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하여 피고들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작년에 새로운 원고들이 소송에 합류했다. 2023년 9월, 캘리포니아는 탄소메이저 5개사(ExxonMobil, Chevron, BP, Shell and ConocoPhillips)와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가 되었다. 역사상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 추출 및 정제를 허가한 주로서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종종 내세우는 화석 연료 사용이 석유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라는 전형적인 주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Walker-Crawford, 곧 발표 예정).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전략은, 주정부 홍보 자료에서 "수십 년간의 기만"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석유 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실, 2023년).

Makah 인디언 부족과 Shoalwater Bay 인디언 부족의 두 부족 정부도 2023년 말 위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피고들로 삼은 동일한 기업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였다(API는 피고로 포함되지 않음). 태평양 북서부에 기반을 둔 두 부족은 해당 소송에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고지대로 옮기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방어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되어 현재 새로운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24년 현재까지 시카고와 펜실베이니아 Bucks County 에서 각각 한 건씩, 최소 두 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¹¹

미국 외 지역 사례

오염자 부담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2023년에 세 번째 오염자 부담금 소송이 유럽 법원에 제기되었다. *Falys v. Total* 사건에서, 벨기에의 한 농부가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인 Total을 상대로 기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해당 소송으로 배상받게 될 손해배상금 전액을 환경 자선 단체에 기부할 의도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유럽에서 북반구 선진국의 청구인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소송 두 건(*Liluya v. RWE and Asmania v. Holcim*)은 모두 남반구 개도국의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에콰도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다배출 기업이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 소송은 2021년에 기각되었다(*Baihua Caiga et. al, v. PetroOriental S.A.*).

배출량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타 사례

한편,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두 번째 별개의 사례 그룹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불법 삼림 벌채를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에서는 삼림 벌채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비용을 벌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은 '기후 변화'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송은 주요 탄소 오염자들이 초래한 기후 피해에 대해 배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IBAMA v. Minerva Ribeiro de Barros e Genesisagro S/A* 소송에서 브라질 연방환경청(IBAMA)은 브라질의 Cerrado 산림에서 대규모 불법 삼림 벌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BAMA는 해당 소송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환경 피해에 대해 피고 회사가 배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Wibisana 및 Cornelius, 2020). 이러한 소송은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소송'의 정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위에서 논의한 사례들과는 달리 이미 특정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Moreira 외., 2024).

11 이러한 사례는 표 2.1의 사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2023년 말까지만 해당한다.

박스 2.5. 오염자 부담 소송의 결과

2015년 이전에 미국에서 제기된 초기의 오염자 부담 소송은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고(Ganguly 외, 2018), 위에서 논의한 2세대 기후 책임 소송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해당 소송 유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페루 후아라즈의 한 농부가 독일 최대 석탄 연소 발전회사인 RWE를 상대로 2015년에 제기한 독일 불법행위 소송인 *Lliuya v. RWE* 사건이다. 이 소송은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페루의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페루를 방문해 사실 조사를 하는 등 증거 조사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원이 궁극적으로 모든 오염자 부담 소송에서 기후 피해 배상을 명령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에 해당한다.

D.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

오염자 부담 소송들의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으로 하여금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새로운 소송 전략이 등장했다.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은 그룹 차원의 정책, 기업 지배구조,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에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고배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회사 전반의 정책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및 환경 실사 기준을 자주 활용하며, 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된다. 해당 유형 소송은 일반적으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 또는 이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넷제로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소송 당사자들은 종종 기업 프레임워크 주장과 오염자 부담 주장을 결합한다. 위의 항목에서 새로운 유형의 오염자 부담 소송으로 언급된 *Falys v. Total*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Falys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외에도 Total에 배출량 감축을 명령하는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오염자 부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박스 2.6 참조).

박스 2.6.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의 결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파리 협정 미준수를 문제 삼은 고무적인 초기 판결 및 의견도 있지만, 기각된 소송과 아직 계류 중인 소송도 여러 건 있다. 기후 행동에 긍정적인 판결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2021년에 내린 *Milieudefensie v. Shell* 사건 판결에서 Shell에게 전체 운영에 걸쳐 신속한 배출량 감축(Scope 3 배출량 포함)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Shell이 항소한 후 2024년 4월 구두 심리가 진행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심리 후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 뉴질랜드 대법원은 *Smith v. Fonterra*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면서, 파리 협정 관련 기업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최고 항소법원이 되었다. Māori 부족 지도자 Mike Smith가 제기한 이 소송은, 뉴질랜드 불법행위법에 따라 유제품 대기업 Fonterra를 비롯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기후와 관련한 고유한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적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이제 일반 법원에서 심리해야 할 잠재적인 새로운 의무와 관련된 최초의 파리 협정 관련 기업 소송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결정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Hook 외, 2021), 법원들이 이러한 사건에 진지하게 관여하려는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건도 항소 등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다른 여러 사건의 맥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는 2021년에 독일에서 제기된 소송 3건(자동차 제조업체와 가스 회사를 상대로 한 2건)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제기 직후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이 중 최소 2건은 현재까지 항소 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되었다.

E. 적응 실패 소송

Sabin Center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제기된 2,500여 건의 기후변화 소송 중 적응 문제를 다룬 소송은 205건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 미국과 호주 법원에서 제기되었다.¹² 이렇게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적응을 다루는 기후 소송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Donger, 2022), 그리고 적응 관련 소송은 완화 소송보다 기후 변화와 덜 명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있다. 많은 기후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적응 소송은 현재까지 기후 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미래 영향에 대한 예측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 적응 소송의 상당 부분에는 '적응 실패' 소송도 포함되는데, 이는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나 기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UNEP, 2023 참조).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정부나 기업이 적응 조치를 도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정부나 기업이 이미 도입했어야 할 적응 조치를 도입하지 않아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¹³

가장 명백한 '적응 실패' 소송 유형은 기존 적응 관련 법이나 정책의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제정된 적응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Northwest Environmental Defense Center v.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사건에서 원고는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장려'하여 사람과 생태계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적응 실패' 소송 사례에 해당한다.¹⁴

최근 또 다른 사례에서 Friends of the Earth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3차 국가적응프로그램(NAP3)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일반인을 지원했다. 영국 동해안 Norfolk에 소재한 집이 해안 침식 위험에 직면한 Kevin Jordan과 지병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Doug Paulley는 법원에 NAP3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NAP3가 의욕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으며,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영향을 간과하여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R(Friends of the Earth Ltd, Mr Kevin Jordan and Mr Doug Paulley v.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Rood and Rural Affairs)* 참조).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NAP3는 폭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의 위험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폭염에 대한 대비를 크게 개선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와 시급성을 갖춘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Howarth 외., 2024). 기후변화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발전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박스 2.7 참조).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관할권에서 제기된 소송은 소수에 불과하다. Serraglio 외.(2024)는 전략적 권리 기반 소송이 이러한 이주민의 가시성을 높여 장기적인 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Bohorquez and Mendonza v. DPS* 소송에서 환경 및 기후 요인으로 인한 내부 이주를 다루었다. 원고들은 Bojabá 강이 범람했을 때 이주민이 되었는데, 이들은 무력 분쟁으로 인한 이재민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국가가 적응 및 개발 계획 초안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 시스템, 계획된 이주 메커니즘 및 행정 등록부를 구축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 이 분류에는 기후변화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미국에서 제기된 일련의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고유한 범주로 취급되지만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응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3 이 정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적응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예: 물 사용 제한으로 인해 평소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을 포함하여 여러 적응 관련 소송은 제외된다. 또한 향후 적응 조치의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도 제외되며, 이러한 소송은 오염자 부담 범주에 포함된다(예: 미국의 도시 및 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예정).

14 이 사례는 부적절한 적응 조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대 친환경 트레이드오프 사례이자 기후목표와 관련된 사례로 분류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들은 정치적,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응 책임을 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책 이행 및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이 사례들은 파리 협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국제 환경법의 광범위하고 때로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국제 적응 의무를 집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의 이주 지위를 구하는 법적 조치들은 기후 적응과 인권의 교차점을 강조하며 적응 소송의 복잡한 환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후 적응 소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는 기후 영향과 적응의 부담이 가장 큰 남반구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박스 2.7. 소송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

기후변화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노인과 청소년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통하여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후에 유해한 활동과 관련된 건강 영향(예: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기 오염에 기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에 관한 소송과는 구별된다.

ECTHR에 회부되기 전,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원고들의 폭염 스트레스 관련 청구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KlimaSeniorinnen v. 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DETEC) 외*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Harvey, 2021). Grand Chamber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위해 신청인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기후 변화, 특히 폭염이 건강과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제출 자료를 수집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고령 여성이 폭염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CTHR은 신청인의 제8조에 따른 권리 향유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8조가 건강 또는 복지에 대한 실제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발생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했다(제437문단).

기후 소송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 건강 위험을 다루는 경우 역시 드물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Held v. Montana* 사건에서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한 상실감, 절망감, 불안감 등 원고의 정신 건강 손상을 인정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기후 불안이 법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해라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에 해당한다(Tims, 2023). 이 판결에서는 또한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승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구체적인 피해까지 잘 정의된 인과적 경로가 추적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ancelCoal 소송'(Africa Climate Alliance v.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에서도 청구인들은 기후 변화가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F. 전환 리스크 소송

기업과 금융 기관(그리고 그 이사 및 수탁자)이 기후 변화 및 넷제로 전환과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에 해당한다. 전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기후위성 주장(아래에서 설명)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이 중 일부는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정도를 파헤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기후에 초점을 맞춘 소송 중 이 주제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 사례를 새로운 전략 유형('전환 리스크')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를 '적응 실패' 소송의 하위 집합으로 간주(기후 전환과 관련된 물리적 영향보다는 기후 전환의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사례로 간주함)했지만, 그 이후로 전환 리스크 소송이 그 자체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이사, 임원 및 기타 임원의 전환 리스크의 (잘못된) 관리와 관련이 있다.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기업 소송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형 소송은 기업 정책이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지만, 기존의 범주와는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후와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 영향보다는 기후 목표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2023년에 제기된 전환 리스크 소송의 한 예로 *Métamorphose v. TotalEnergies* 소송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Total의 주주들은 Total이 좌초 자산에 대한 잘못된 회계 처리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주들은 회사가 탄소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절히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며, Scope 3 배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영국 고등법원에서 전환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전략적 사건 중 하나인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소송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기각되었음(그리고 징벌적 비용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리스크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Setzer 및 Higham, 2023). 이 사건에서 ClientEarth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체 에너지 전환 전략의 목표(즉, 넷제로 공약)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파생적인 청구를 했다. Carnwath(2024)가 쓴 것처럼 재판 없이 소송이 기각된 것은 "기회를 놓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영국 회사법의 관련 조항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자 현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 파리 협정의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에 직면하여 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성실성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결코 묻히지 않았다.

ClientEarth 사건이 진행된 후 몇 달 동안 전환 리스크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건이다. 2023년 12월 폴란드의 에너지 기업 Enea는 논란이 되어 결국 취소된 Ostroleka C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지했던 전직 이사 몇 명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석탄 프로젝트 계획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포기되었고, 결국 가스 프로젝트로 대체되었다(S&P Global Platts, 2020).

이 사건과 관련한 Enea의 결의안에 따르면 전임 이사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아 회사가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은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Enea 주주 87%의 지지를 얻었다.

Ostroleka C 사건은 시민단체가 수년간 발전소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캠페인에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주 결의안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여 ClientEarth가 제기하고 지원한 '표적 공격' 소송의 여러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소송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이사들에게 프로젝트가 '좌초 자산'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작용했어야 했지만, 이사들은 이와 상관없이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기업 가치의 하락이 새로운 화석 연료 투자와 관련된 기후 리스크의 관리 및 소통 부족에 기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거 지향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미국 *Ramirez v. Exxon Mobil*의 사례도 기존 사례로 참고할 수 있고, 자세한 논의와 사례는 Setzer 및 Higham, 2023 참조).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의 캠페인의 규모와 유럽 전역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30건 이상의 '표적 공격' 사례를 고려할 때, Enea 사건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폴란드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더 넓은 유럽 맥락에서 신중한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이 일련의 소송은 기후 분야 밖에서 생물다양성 위험 평가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새로운 소송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스 2.8 참조).

박스 2.8. 자연과 생물다양성 위험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기후 위험에 직면한 신중한 관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결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환경 위험, 특히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위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되었다. 2024년 3월, 영국에서는 Commonwealth Climate and Law Initiative and Pollination의 의뢰를 받은 *법률 자문의견*이 발표되었는데, 해당 의견서에서는 영국에 기반을 둔 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을 고려할 수 있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당 의견서에는 위에서 논의한 일련의 판례에 대한 상당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G. 기후위성 소송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부정확한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위성 소송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성장한 소송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Benjamin 외, 2022). 이러한 소송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보다 더 기후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및 홍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제로', '기후 중립성', '삼림 파괴 없는' 등의 용어와 관련된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후 과학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잘못된 정보 캠페인이나 알려진 위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후위성 소송은 기후 소송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7년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이러한 소송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후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주로 기업에 초점을 맞춘 소송들 중 다른 형태의 소송과는 달리,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이미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박스 2.9 참조).



Fossilvrij가 KLM을 상대로 승리한 후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진: Hermen van de Waal/Fossilvrij NL

박스 2.9. 기후위성 소송의 결과

현재까지 결정된 기후위성 사건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Velez Echeverri 외., 2024 참조). 2016년(가장 먼저 확인된 사건의 접수일)부터 현재까지 검토된 약 140건의 기후위성 사건 중 절반 이상이 공식 결정에 도달했으며, 이 중 54건(즉, 70%)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기후위성 사례는 규제 기관의 조사와 준수법 기관에 대한 고소에 해당하지만, 2023년에는 법원에서도 중요한 승소가 있었다. 먼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FossilVrij NL v. KLM* 사건에서 지속 가능성 광고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그 구제책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해당 광고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았고, 소비자가 여전히 해당 광고 캠페인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Vanguard Investments Australia*의 윤리적 채권에 대한 주장이 허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후위성 사례가 넷제로 달성 및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더 광범위한 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위 광고와 주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며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실질적인 기후 행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성공적인 소송은 잘못된 관행을 억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글로벌 기후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행동, 규제 프레임워크, 대중의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위성 소송은 종종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기후 중립성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운송과 관련하여서도 제기된다. NGO(비정부기구)인 Opportunity Green의 크루즈 선사들에 대한 *ASA 소송*에서는 "크루즈 업계가 화석 LNG를 '친환경' 연료로 조직적으로 오도하는 광고"에 대해 여러 크루즈 선사들을 상대로 제소했다. 이 사건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와 산림 기반 상쇄 제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초점을 맞추었던 항공사에 대한 일련의 소송에 이은 것으로, 운송 분야가 지속적인 주목을 받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은 산림 탄소 배출권의 추가성과 일시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Delta 항공의 "탄소 중립성" 주장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Berrin v. Delta Air Lines Inc.*). 2024년 4월 원고들 주장 중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항공사가 탄소 배출권 공급업체의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공사의 행위가 캘리포니아 소비자구제법(Consumers Legal Remedies Act)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되었다. 이 사건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일부 해결책의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경향의 사건 및 조사 추세 일부이며,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antham 연구소와 DLA Pip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Chan 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소송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위성에 맞서 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주장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아마존에 초점을 맞춘 두 건의 기후위성 사건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기후위성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브라질에서 제기된 *Amorema and Amoretgrap v. Sustainable Carbon* 사건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지 않고 아마존의 탄소 배출권을 '사회적 탄소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점을 고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지역사회의 이름, 이미지, 문화유산이 오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이 사회 환경적 책임을 잘못 표현하여 지역 사회에 물질적, 도덕적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한다.

두 번째로, 프랑스에서 제기된 *Comissão Pastoral da Terra와 Notre Affaire à Tous v. BNP Paribas* 소송은 특히 아마존의 토지 강탈과 삼림 벌채에 연루된 주요 소고기 생산업체인 Marfrig와의 금융 거래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지 못한 은행 BNP Paribas의 실사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¹⁵

15 이 사례에는 수도꼭지 잠그기와 기업 프레임워크 주장도 포함되었다.

이 사례들은 기업의 환경 관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은폐할 수도 있는 기후위성의 미묘하고 상황에 따른 영향을 조명한다.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접근 방식과 관할권은 기후위성 소송에 대한 이해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전략을 강조한다.

H. 수도권지 잠그기 소송

기후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금융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그 수와 다양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지 잠그기 소송은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이 둘을 결합하여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금융 의사 결정에서 기후 리스크의 중요성을 증폭시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활동에 대한 자본 비용을 증가시켜 해당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질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2023년에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호주 비정부기구(NGO)가 호주 연방법원에 화석 연료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기관이 해당 투자에 대한 전체 영향 평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Jubilee v. EFA 및 NAIF* 사건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피고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보조금과 화석 연료에 유리한 조세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은 과거에 기각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영국의 *R(oao Cox & Others) v. Oil and Gas Authority 외 사건* ('오염에 대한 지불 사건')이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기차 여행보다 항공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세 제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에 기각된 *In Re Tax Benefits for Aviation* 사건도 있다.

2023년 UN 전문가 그룹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라 석유 회사 Saudi Aramco의 재정 후원자의 책임에 대해 여러 정부에 서신을 발송했다¹⁶. 이 서신은 Saudi Aramco가 기후 관련 국제 인권법 위반을 저질렀고, Saudi Aramco의 재정 지원자들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ClientEarth의 2021년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UN 전문가들은 Saudi Aramco가 파리 협정을 훼손할 가능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Saudi Aramco의 확장을 지원하는 금융 기관들이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ClientEarth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직접 후속 공문을 보냈다.

화석 연료 회사로의 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비사법적 사례에서,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와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10개 기관*이 보험 중개업체 Marsh를 상대로 우간다의 TotalEnergies가 계획한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과 관련하여 미국 국가 연락사무소(NCP)에 민원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Marsh가 인권 및 환경 존중과 관련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 사례는 EACOP를 대상으로 한 여러 문제 제기 건물 중 하나에 불과하며, 프랑스에서 Total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들과 동아프리카 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도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일한 기업의 활동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23년 11월 동아프리카 사법재판소 1심 법원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신청이 더 일찍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실시했다. 신청인들은 이 결정에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6 해당 서신은 다음의 금융 기업과 관련이 있다: JP Morgan, Citi, HSBC, SMBC, Cr dit Agricole, Morgan Stanley, BNP Paribas, Goldman Sachs, Mizuho, Soci t  G n rale, EIG Global Energy Partners. 해당 서신 및 소장에서는 Saudi Aramco 자체의 의무도 고려한다

3부.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의 발전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기후 사례의 대부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와 기업의 부적절한 행동과 의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소송이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원은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탈선시키려는 의제를 추진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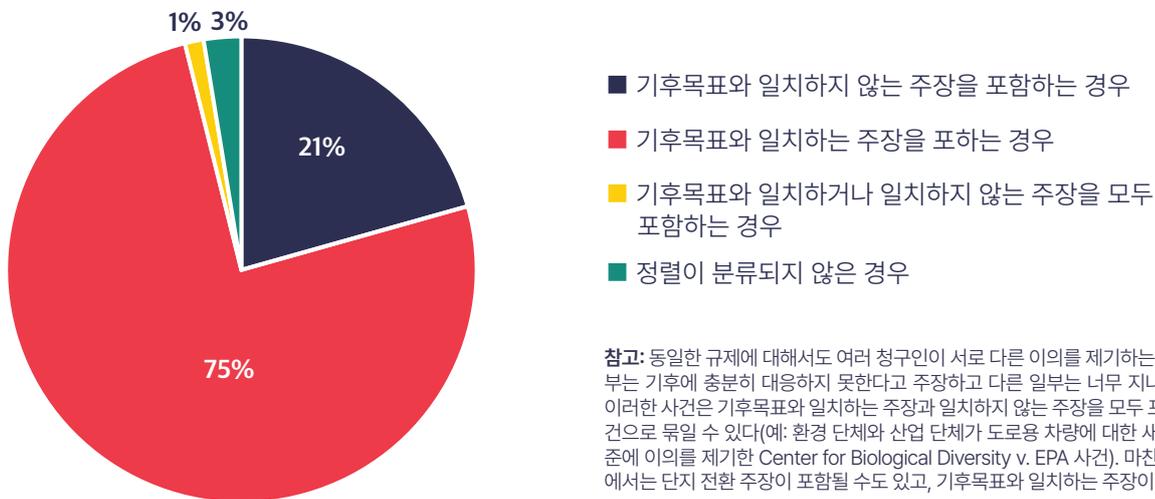
때때로 이러한 소송에 연루된 행위자들은 의도적으로 기후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적 전술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부 산업 그룹의 경우 잘 기록된 현상에 해당한다(Nosek, 2020; Mijatović, 2023; Dutta, 2020). 이러한 사례는 '전략적' 소송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고, 종종 '반기후' 소송(Hilson, 2010) 또는 '백래시' 소송(UNEP, 2023)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2023년에 제기된 소송 중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유형인 'ESG 백래시 소송'과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정의는 아래 참조).

그러나 기후목표의 진전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지 않는 기후 관련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기후'적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전략적인 소송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사례는 기후 행동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행동이 설계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개인, 지역사회 또는 노동 단체가 기후 행동이나 정책이 자신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Savaresi 및 Werewinke-Singh, 2024).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과 기후를 이유로 도입되는 프로젝트 또는 정책 사이에 명백한 상충 관계가 발생하는 사례가 관련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친환경 대 친환경 트레이드오프' 사례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사례 중 상당수는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장려하거나 도구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 사례를 구분하는 것은 특히 다양한 당사자의 동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2023년에 접수된 230여 건의 소송 중 약 50건(21%)에서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그림 3.1 참조). 또한 이 중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그림 3.1. 2023년에 제기된 소송 중 기후목표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포함된 사건 수



A. ESG 백래시 소송

최근 미국에서 기후와 무관한 소송의 주요 경향은 이른바 백래시 소송의 증가로, 이는 기후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기후 정책과 같은 변혁적인 사회 문제를 둘러싼 소송은 종종 백래시를 유발하며,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법학 분야에 걸쳐 잘 설명되어 있다. 인종 평등(Klarman, 2004)과 성소수자 인권(Keck, 2009)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법적 결정이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이에 반대하려는 운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유형의 반발은 소송의 중심이 되는 대의에 대한 동원과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Setzer 외, 2024 참조).

사회-법적 맥락에서의 백래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정책 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래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Almeida 외., 2023).

미국 백래시 소송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2023년에는 기후 위험을 재무 결정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신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중요한 소송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Spence v. American Airlines, Inc.* 사건으로, 원고는 American Airlines이 재무적 수익보다 ESG 목표를 우선시하여 직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른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2024년 2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항공사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또 다른 *Wong v. New York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사건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기후변화 고려사항을 투자 결정에 통합함으로써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미국 테네시주 법무장관 Jonathan Skrmetti가 자산운용사 BlackRock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한 *State ex rel. Skrmetti v. BlackRock, Inc.* 사건에서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 신탁법 위반 및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과는 달리, Skrmetti의 소송은 투자 수익 극대화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BlackRock의 정책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법의 사용은 탄소메이저에 대해 도시와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며, ESG 투자 관행에 반대하는 다른 주 정부에서도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미시시피주는 BlackRock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BlackRock의 ESG 투자 정책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융 행위자의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대립에서 소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투자 관행에 직면한 법적 전략의 진화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미국에서 제기된 이번 ESG 백래시 소송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금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 소송을 제기한 영국의 *McGaughey v. USS* 사건, 2023년 한국에서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에 발표한 석탄 매각 계획의 공개를 강제하기 위하여 환경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SFOC 외 v.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등 세계 다른 지역들의 소송 사례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관할권 간에 이미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Gordon, 2023 참조). 또한 과거에는 미국에서 기후와 관련된 전환 리스크 소송이 존재하였지만 2023년에 접수된 새로운 소송 사례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⁷

미국과 다른 관할권 간의 이러한 차이는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EU 및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후 위험 보고 규정과 같은 법적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박스 3.1 참조).

17 근거 없는 지속가능성 약속으로 투자자를 속였으며 육류 가공업체 JBS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 고발장이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Mighty Earth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존재한다.

박스 3.1.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새로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과 그에 도전하는 사람들

2024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및 해외 기업 모두에게 광범위한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공시 규정을 대폭 업데이트했다. 해당 업데이트는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중요한 경우), 자발적 기후 목표 및 전환 계획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부 규정은 약 900페이지에 달하며, 상당한 공개 토론과 24,000건 이상의 의견 제출을 거쳐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업데이트의 최초 목표는 기업 활동의 기후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규정은 환경 단체, 석유 회사, 미국 상공회의소, 주 법무장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규정이 채택된 후 10일 이내에 9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건들은 제8순회 항소법원에 통합되었다. 2024년 4월,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법적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위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합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이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 내에 있으며 투자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위 소송은 기후 고려사항을 재무 보고에 통합하는 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한 깊은 분열을 강조하며, 기후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토론의 장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B.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 사례

SLAPP 소송은 공익 문제에 대해 발언한 활동가 및 기타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으로, 주로 기후 변화 및 환경과 관련된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SLAPP 소송의 목적은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원을 소진시켜 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는 것이다(Manko, 2022). SLAPP 소송은 부유한 기업이 자원이 부족한 시민사회 단체를 상대로 값비싸고 실익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는 상대를 괴롭히고 기후 운동과 대중의 참여를 방해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Kaminski, 2022).

2023년에 영국의 Shell과 프랑스의 Total이 Greenpeace 및 기타 비정부기구(NGO)들을 상대로 제기한 SLAPP 소송이 여러 건 있었다(프랑스 소송은 이후 기각됨). 두 국가 모두에서 비정부기구(NGO)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여했거나 소송을 지원했지만, Shell에 대한 SLAPP 소송은 소송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Greenpeace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SLAPP 소송의 전조로 보이는 중재 요청은 Eni가 이탈리아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다.

2024년 1월, Exxon은 또한 엑손에 더 빠른 배출량 감축 궤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하려 했던 두 주주 활동가 단체인 Arjuna Capital과 Follow Th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Exxo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주 결의안에 대한 무조치 절차를 우회하고자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제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안의 가용성, 주주들 사이에서 결의안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수준, 소장이 처음 제기된 후 결의안이 실제로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xon의 소송 결정은 피고 단체들과 다른 주주들이 향후 유사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소송은 SLAPP 소송의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2021)에 따르면 SLAPP는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데이터베이스에 비교적 적게 기록되어 있지만, 화석 연료 업계가 반대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법적 전술 중 하나가 SLAPP라는 것은 분명하다(Nosek, 2020). *EarthRights International(2022)*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화석 연료 업계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SLAPP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52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Greenpeace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러한 이전 사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EU 내에서 *SLAPP 방지 법안*이 제안되는 데 기여했다.

C.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종종 인권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다. 정의로운 전환 소송 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2022년 Savaresi와 Setzer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고, 여러 저자가 참여한 작업 논문(Savaresi 및 Werewinke-Singh, 2024)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어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사례는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나 중요 광물 채굴과 같은 기후 완화 조치가 핵심 이슈인 사례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에 해당한다(Savaresi 및 Werewinke-Singh, 2024; Tigre 외., 2023). 예를 들어, *Regional Government of Atacama v. Ministry of Mining* 사건에서 Atacama 지역 정부인 광업부는 칠레 정부가 대중과의 협의 없이 지역 내 리튬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튬은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많은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2023년에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초점을 맞춘 사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정의로운 전환 소송들이 접수되었다. 여기에는 UN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s) 그룹이 프랑스 정부에 보낸 '메가 유역' 프로젝트(대규모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므로 기후변화 적응 조치로 간주될 수 있지만, 소규모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해당) 개발과 관련한 서신이 포함된다. 또한 2022년 UN 특별보고관 그룹이 발표한 이전 서신(파키스탄에 대한 Karachi의 수로 [nullahs]를 따라 진행 중인 강제 퇴거 및 주택 철거에 관한 서신)도 최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해당 서신에서 UN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조치인 파키스탄의 Karachi 수로변 건물 철거 전략의 실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철거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는 국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과 생계 터전이 파괴되는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

최근 몇 년간 등장한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의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소송은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 즉 기후와 생물 다양성 또는 기타 환경적 목표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는 소송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기후 완화 프로젝트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제기된다. 본 보고서 1부에서 언급한 인도 대법원 판례 M.K. Ranjitsinh 사건은 이러한 소송의 좋은 예로, 처음에는 가공 송전선이 Great Indian Busta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부가 송전선이 인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기후 행동과 다른 보존 조치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발전했다.

'정의로운 전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송 유형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설계되는 방식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사례 검토 결과 2023년 미국에서는 최소 4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는 환경 단체가 북대서양과 흑등고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승인에 이익을 제기한 *Save Long Beach Island v. U.S. Department of Commerce* 사건 등이 포함된다.

위 소송에서 민원인들은 이 프로젝트의 기후 변화 완화 혜택이 미미할 것이고, 그러한 혜택마저 "엄청난 탄소 격리 능력"을 가진 고래 개체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서 많은 지역 단체와

정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약 300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Eisensohn, 2023). 이러한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공청회에서의 의견 제시, 편지 쓰기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Brown Climate and Development Lab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는 미국 동부 해안의 여러 주에서 운영되는 '해상 풍력 반대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확인된다(Slevin 외, 2023). 이 보고서는 종종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에는 보존 문제에 동기를 부여받은 풀뿌리 조직부터 과거 기후 변화 거부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 조직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같은 책). 특히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정보에 따르면,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고래 개체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움직임과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대 친환경 소송의 출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NOAA, 2024).



인도 대법원 M.K. Ranjitsinh 사건은 멸종 위기에 처한 Great Indian Bustard를 가공 송전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사진: Inside Indian Jungles/FlickrL

4부. 영향 및 향후 동향

기후 소송의 다양한 영향에는 법원 명령이나 법률의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1부와 2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송의 결과)과 간접적인 영향이 모두 포함된다. 간접적인 영향은 법정 밖에서 발생하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원래 소송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¹⁸ 이 항목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법정 밖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후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기후 소송의 향후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존의 소송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통해 발전하는 미래의 기후 소송 또한 기존 소송의 간접적 영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법정 밖에서의 영향력

기후 정책 및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로서의 법원

기후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은 종종 사법 권한과 권력 분립 원칙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특정 정책 결과를 지시하기보다는 주로 정부의 법적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Nedevska, 2021). 그러나 급성장하는 국제 기후 소송 운동과 함께 법원이 글로벌 기후법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구 시스템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할 수 있다(Kotze 외., 2023).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입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정부 기관 및 시민 사회 간의 권력 역학을 재구성한다. 법원은 책임을 확립하고, 권력 관계를 재정 의하고, 취약성과 불공정을 해결하고, 국제 기후법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하고, 최신 기후 과학을 통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특히 KlimaSeniorinnen 사건은 전력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잘 보여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국가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해야 하며, 국가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과학과 국제 관행에 근거한 기후변화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좁은 인정 범위를 부여했지만, 필요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넓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판결은 국가가 모든 정부 부문에 걸쳐 책임을 지고 최선의 과학과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 기반한 배출 감축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영역에 대한 사법적 간섭의 한계도 명확히 했다. 비록 Eicke 판사의 반대를 포함하여 일부 비판에 부딪히기는 했지만(요약은 Blattner, 2024 참조),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원이 특정 기후 정책을 규정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의 조치가 확립된 기후 목표 및 기후 중립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미묘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전략적 입장은 기후 소송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과 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법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ECtHR의 결정은 각국 정부가 국제 및 국내 기후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사법부의 중요한 감독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은 판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 소송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결정은 법원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스 4.1 참조). 판사들의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 소송은 다양한 맥락에서 기후 변화와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에 영향을 미친다(Averchenkova 외., 2024; Peel 외., 2022).

18 Setzer 및 Higham, 2023; Peel 및 Osofsky, 2015; Peel 외., 2022; Setzer 및 Higham, 2022; Bouwer 및 Setzer, 2020 참조.

박스 4.1.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공개심리

기후 소송에서 공개적인 심리와 증거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점점 더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개 심리는 기후 소송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Medici-Colombo 및 Ricarte, 2024). 공개 심리는 복잡한 과학적 증거의 도입을 촉진하여 판사가 기술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하고 의심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시민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증거 기반 토론을 촉진하고 법정 내 토론을 풍부하게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변화 국가조사(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its National Inquiry on Climate Change)와 같은 활동가들의 노력을 비롯하여, 2017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5대 석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미국 지방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재판소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달 동안에도 계속되어 2024년 4월에는 한국에서 4건의 헌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심리가 열렸고, 미주 인권 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는 2024년 4월 코스타리카에서 권고적 자문 의견 요청에 관한 변론을 심리하는 대신 2024년 4월 바베이도스와 5월 브라질에서 이례적인 공개 심리를 개최했다.

공개 심리를 개최하는 것은 법원과 기후 소송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공개적인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내려진 후 기후 소송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소송이 법정에서 성공을 거두더라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Setzer 외., 2024). 2015년에 판결이 내려진 파키스탄의 획기적인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한 Ashgar Leghari의 성찰은 이러한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Kaminski, 2024). 이 사건의 법적 승리는 처음에 국가 기후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촉발시켰고, 법원은 판결 이행에 대한 정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원이 감독하는 공무원 위원회를 소집하는 새로운 구체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치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yed Mansoor Ali Shah 판사 등 주요 사법부 인사들이 다른 직책으로 자리를 옮기고 더 이상 사건의 결과 이행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추진력이 약해졌다. 2017년 기존 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구성된 기후변화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Leghari는 소송을 환경 옹호에 필요한 광범위한 전략의 한 요소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중대한 정책 변화와 투자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적 승소와 기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입법자들은 기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히 인권의 맥락에서 기후 소송과 입법 개발 간의 상호 작용을 검토한다(Rajavuori 외., 2023 참조).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제기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직간접적으로 기후 프레임워크 법률의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증거도 있다(Averchenkova 외., 2024). 2023년에는 오염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입법부를 비롯한 여러 포럼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UN 기후 회의(COP28)에서 발표된 손실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기후변화 적응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후 소송의 맥락에서 손실과 피해는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소송과 연관되는데, 이는 북반구 선진국에 있는 국가나 기업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기후 변화가 남반구 개도국에 야기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과 연결된다(Wewerinke-Singh 및 Salihi, 2020; Bouwer, 2020; Toussaint, 2020; Kodiveri 외., 2023).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미국의 기후 책임 소송에서도 손실과 피해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항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오리건주 Multnomah County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은 특정 기업이 2021년

미국 열돔으로 인해 입은 실제 피해액 5천만 달러와 향후 피해액 15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적어도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치적 논의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몬트 주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기후 슈퍼펀드 법안(Climature Superfund Act, S.259)을 최종 승인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이 제정되면, 유해 폐기물에 대한 연방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에 탄소 오염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버몬트의 법안은 과거 30년 동안 10억 미터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해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책임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각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기후 회복 및 적응과 관련된 버몬트의 비용을 계산하는 책임은 주 천연자원국과 주 재무부에 있다. 법학자들은 이 법안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욕 주의 유사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의회에서 좌초되었고,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에서도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기후 비용 회수를 목표로 하는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차이점 분석에 대해서는 Lockman과 Shumway, 2024 참조).

이러한 법안의 배경이 되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3년 말 필리핀에서 유사한 개념을 담은 법안이 제안되었고(Bradeen 외, 2023 참조),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기후 보상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해 왔다(Gage 및 Wewerinke-Singh,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최종적인 입법 절차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긴급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 미국 주정부는 미국 기업이 기후 관련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반면, 남반구 개도국의 지역사회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Lyster(2015)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문제를 소송에 맡기는 것의 어려움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국제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통화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 글로벌 "화석 연료 지원 기후 재난 대응 기금(Fossil Fuel-Funded Climate Disaster Response Fund)"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기후 소송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증진하는 금융 규제 당국

기후 소송이 법정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기여하는 것은 법원과 의원들뿐만이 아니다. 금융계의 많은 주체들도 기후 소송이 개별 기업과 더 넓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NGFS)는 기후 관련 소송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섰다. 첫 번째 보고서는 이러한 소송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NGFS, 2023a). 후속 보고서에서는 기후 관련 소송의 증가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에 대한 미시적 건전성 감독을 검토하였다(NGFS, 2023b). 이 두 문서는 중앙은행과 감독 당국이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이자 전 NGFS 의장인 Frank Elderson은 2023년 9월 *'Come hell or high water'* 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이 논의에 주목할 만한 목소리를 더했다. Frank Elderson은 기후 및 환경 관련 소송이 은행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강조하며 이러한 진화하는 위험에 맞서 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 신임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인 Wopke Hoekstra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화석 연료 부과금을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3/754186/IPOL_BRI\(2023\)75418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3/754186/IPOL_BRI(2023)754186_EN.pdf) 참조).



런던 왕립사법재판소 법정 밖에서 Shell을 상대로 한 전환 리스크 소송을 맡은 ClientEarth의 법무팀.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부의 F 항목을 참조.

사진: ClientEarth

그러나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는 현재의 방법론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의 규모와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Wetzer 외, 2024). 법적 리스크를 별개의 위험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와 NGFS를 비롯한 기관들은 여전히 법적 리스크를 이러한 맥락에서 '전환 리스크'와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Carney, 2015). 이러한 관점은 기후 소송이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와 조치가 필요한 중심적인 위험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 기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당국은 위험 평가 및 관리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금융 부문이 기후 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송 위험에 직면하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평가하는 (재)보험사들

기후 소송은 보험 및 재보험 업계에 운영, 투자, 직접적인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의 리스크를 야기하며 점점 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Golnaraghi 외, 2021; Doering 외, 2023; Brook 외, 2023). 이 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기업 활동 및 고객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송 또는 규제 조치를 통해 기후 관련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 재정적 손실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기후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규제 당국, 주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 소송이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더욱 견고하여 세밀해졌는데, 이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2021년 Bank of England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사들이 기후 소송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캐나다 연방 보험 규제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강조하면서 책임 보험 정책에 따라 기후 관련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험회사는 이사 및 임원과 함께 이러한 위험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규제 환경은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후 소송이 상업적인 일반 배상책임, 이사 및 임원의 배상책임 보험(D&O) 정책, 환경 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험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광범위한 리스크를 시사한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보험업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리스크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이는 특히 보험 인수 위험으로 제기되는 비용 및 가격 책정 문제와 보험사 자체 운영에 대한 위협으로 그렇다(CSFI, 2023). Lockman(2023)이 제시한 모델링 도구의 개발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소송이 이러한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리스크는 보험사가 현재와 향후 몇 년간 해결해야 할 기후 관련 리스크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는 법정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아 보험 업계의 참여도가 낮지만, 이러한 현상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협회와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UK Law Society와 같은 법률 단체는 법률 조직들이 넷제로 목표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기후 변화의 물리적 및 법적 위험을 고객 자문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도 상당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 Vaughan(2023)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의 윤리적 책임은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컨설팅, 자문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소송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내와 관련된 배출량, 즉 '권고 배출량'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미래 동향

지금까지 성공적이거나 심지어 실패한 기후 소송의 문서화된 결과 중 하나는 다른 관할권의 변호사와 법원 간의 중요한 국제 교류 과정을 포함하는 추가 기후 소송의 제기다(Affolder 및 Dzah, 2024; Ganguly 외., 2018). 여기서 우리는 소수의 관할권에서 확립된 기존 판례들이 글로벌 차원의 미래 동향을 알리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추가로 살펴본다.

재난 후 소송 - 회복 조치의 옹고 그림은?

기후 관련 재난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회복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법원에서 중요한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후' 소송 사건의 초기 사례로는 2023년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이후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복구 노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Comité Dialogo Ambiental v.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소송이 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복구 계획을 세울 때 푸에르토리코의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전력 인프라를 재건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건은 회복력을 제한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을 향후 수년간 '고정'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는 2022년 UN 특별보고관 그룹이 발표한 서신과 일부 유사점을 보이는데, 해당 서신에서 UN 특별보고관 그룹은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카테고리 4, 5 허리케인에 해당하는 Eta 및 Iota 이후 Vieja Providencia와 Santa Catalina 섬의 아프리카계 Raizal 주민들이 겪은 인도주의 및 환경 위기에 대한 콜롬비아의 대응 실패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해당 서신에서 제기된 우려 중에는 허리케인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향후 기후 관련 재난에 대한 복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있었다. 이 서신은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앞서 내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생태 학살' 개념 및 다른 형태의 형법을 사용하는 기후 소송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생태학살 관련 법안이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승인된 *새로운 벨기에 형법*에 따라 벨기에에는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침략 범죄와 함께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벨기에 법은 또한 기업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개인, 이사 및 기타 임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은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생태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는 최대 16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 파괴 범죄'와 같은 관련 개념을 국제법에 도입하자는 제안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IUCN, 2024).

또한 2024년 2월, 유럽 의회는 환경 범죄에 대한 확장된 목록을 포함하는 *새로운 EU 지침*을 채택했다. 개인과 기업 대표가 저지른 환경 범죄는 피해의 지속 기간, 심각성 또는 가역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은 환경을 복원하거나(피해가 가역적인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타 부수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다.

생태학살 개념에 관한 이러한 발전이 기후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후 소송의 맥락에서 환경 보호에서 형법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이미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기본 조약인 로마 규정(Rome Statute)이 기업 행위자가 조장하는 기후 허위 정보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소를 기후 문제에 관여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The Planet v. Bolsonaro* 및 *NZ Students for Climate Solutions and UK Youth Climate Coalition v. Board of BP 사건 참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생태학살과 기후 책임에 대한 논쟁이 서로 점점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 소송과 기후 소송은 새로운 사건들에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기후 소송의 전략은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소송과 같은 다른 유형의 환경 소송으로 이전되어 통합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 소송도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플라스틱 생산, 사용 및 폐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다루며, 화석 연료 추출부터 제품 제조 및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와 관련된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소송은 환경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시설의 확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플라스틱 관련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등의 방식으로 기후 변화 분야와 교차점이 발생한다.

또한, 확장된 생산자 책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및 기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 및 재활용을 포함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75개 국가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플라스틱 생산, 사용 및 폐기로 인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했다(UNEP/EA.5/Res.14, 2022년 3월 2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적, 법적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소송은 광범위한 기후 소송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권리 기반 환경 소송은 계속해서 기후 논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3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것이 다른 권리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침해한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다(*La Oroya v. Peru*).

이 소송은 La Oroya의 주민 8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야금 단지의 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페루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기후 변화가 분쟁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법원은 "국가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오염 가스 배출로 인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페루 국가에 La Oroya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포괄적인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우리는 환경 소송의 다른 중요한 발전이 기후 소송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박스 4.2 참조).

박스 4.2. 환경 단체의 주장에서 기후 단체의 주장으로?

특히 환경 재난과 관련하여 영국 법원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항소법원은 2015년 브라질 Fundão 댐 붕괴 사고와 관련된 *Município de Mariana v. BHP*의 재판이 2024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영국 법원에 제기된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70만 명이 넘는 원고들이 집과 생계 피해에 대해 최대 360억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대법원이 *Vedanta*와 *Okpabi* 사건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해외 환경 피해에 대해 영국에 소재한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환경 피해 구제의 지형이 재정될 수 있으며, 영국 법원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간절히 기다려온 이번 판결은 Fundão 사태의 원고들에 대한 영향을 넘어 향후 ESG 및 기후 소송, 특히 주요 배출자에 대한 소송에 대한 광범위한 선례가 될 수 있고, 환경 피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영국 법원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기후 소송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매년 제기되는 신규 소송 건수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둔화는 전략적 소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기업 프레임워크 전략과 오염자 부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소송 중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이러한 사례가 주요 관할권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위험 사건의 경우처럼 새로운 소송 전략이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

새로 제기되는 소송의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소송 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소송 제기 건수뿐만 아니라 소송 내 경향에서도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업 소송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최근 판례가 대부분 기후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세계 다른 곳의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는 전략의 선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향후 더 광범위한 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SG 백래시 소송의 증가와 같은 추세는 다른 관할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인 주 정부 정치의 양극화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 소송이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과 같은 일부 유형의 소송은 이미 국내 기후 거버넌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험 소송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송의 장기적인 영향은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하다. 두 가지 유형의 사건 모두 기후 사건의 더 넓은 범위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현상은 법원과 법조계부터 입법자와 규제기관,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نطاق스와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록: 방법론적 참고 사항

데이터 수집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례에 대한 정보는 주로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데이터는 2024년 4월 4일에 미국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5월 10일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되었다.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 그 이후로 업데이트되었다.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bin Center의 기후 사례 차트의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례 분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사례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Sabin Center에 제공되었으며 적절한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예정이다.

2023년 보고서 발표 당시 Sabin Center의 글로벌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는 750건 이상의 소송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170건 이상의 새로운 소송이 글로벌 데이터 세트에 추가되었다. 추가된 소송 중 상당수는 2023년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는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소송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송 건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4년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다운로드 시점에 Sabin Center의 미국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는 1,745건 이상의 소송 사건 묶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일한 주제로 제기되어 법원에 통합된 소송의 경우, 하나의 소송 묶음에 두 개 이상의 소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Western States Trucking Association Inc. v. EPA* 사건은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가 대형 차량에 대한 새로운 배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정 대기법 우선권 면제를 승인한 환경 보호국(EPA)의 결정에 대한 6개의 개별 이의 제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무역 협회, 주 및 캠페인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원고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러 건의 불만이 제기되어 통합된 유사한 사례로는 재생 연료 기준에 관한 새로운 EPA 규칙에 대한 9건의 개별 이의 제기가 포함된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v. EPA*의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환경 단체가, 다른 일부는 기업 및 무역 협회 또는 산업 단체가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산정되지만,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범주 및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소송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사례 분류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러한 보고서를 위해 사례를 분류할 때는 주로 Sabin Center의 사례 요약을 기반으로 한다. 요약본의 정보만으로는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언론 보도에서 전체 사례 문서를 검토하기도 한다. 일부 분류는 연구팀원 한 명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정되기도 하지만, 분류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저자들의 자세한 검토 및 논의를 거친다.

전략적 분류

본 보고서의 2부에 있는 많은 분류(예: 전략적 사건으로 분류할지 여부 결정)는 정보에 입각한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전략 분류는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예: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발행)와 청구인 유형(예: 환경 보호라는 사명과 목적을 가진 비정부기구(NGO) 또는 커뮤니티 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비정부기구(NGO) 측의 광범위한 옹호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해당 소송을 반드시 '전략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전략적' 또는 '비전략적'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거나 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범위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없이 특정 상황에 적용할 구제를 얻기 위해 제기된 소송(즉, 비전략적 소송) 역시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소송(즉, 전략적 소송)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할 수 있다.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광범위한 의도를 항상 고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 의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제기된 사건도 법원이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전략적 특성이 법원이 쟁점을 판단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ClientEarth v. Shell*의 경우처럼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Setzer 및 Higham, 2022 참조).

본 보고서에서 다양한 전략 유형에 대한 식별은 일부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사례에서는 여기에서 식별하지 못한 추가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 소송에서 사용된 1차 전략과 2차 전략으로 검토 범위를 한정했지만, 어떤 전략이 우선시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더 많은 권한 있는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이해와 우리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률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략별로 사례를 분류하는 것이 기후 소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 접수된 사건에 사용된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하는 경우, 이전 사건의 수치는 글로벌 데이터 세트의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 데이터 세트가 상당히 방대하고 이전 보고서에서 미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과거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 접근 방식은 사례 범주에 따라 달라졌다:

-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경우, 비교 데이터는 미국 사례를 포함한 해당 소송 유형에 대한 이전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에서 파생되었다(Higham 외., 2022). 이 데이터 세트는 보다 최근의 사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다.
- 기업 프레임워크, 전환 리스크, 기후위험 및 오염자 부담 소송의 경우, 저자들이 개발한 2015년 이후 접수된 기업 사례 데이터 세트를 검토하여 비교 데이터를 도출했다.
- 기업 행위자에 대한 사례와 정부 행위자에 대한 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수도꼭지 잠그기 및 적응 실패 사례의 경우, 본 보고서를 위해 climatecasechart.com의 사례 분류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및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과거 비교 사례의 데이터 세트를 개발했다.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적응 실패 소송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Sabin Center 웹사이트의 분류 중 '적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 데이터 세트를 개발했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94건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그 다음 각 사례를 검토하여 적응 실패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사례를 찾기 위해 '공공 금융', '은행', '수출 금융'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과거 비교 사례를 찾아냈다. 또한 climatecasechart.com의 증권 및 금융 규제 아카이브에 있는 모든 사례를 수동으로 검토했다. 2015~2023년 데이터에서 금융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에 기후를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후와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몇 건 확인되었다. 수출입 금융 기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례도 확인되었지만 모두 2015년 이전의 사례에 해당한다.
-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례의 수를 정량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의 분류

독자들은 저자가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의 분류를 검토할 때 주어진 사건 내에서도 여러 단계로 결과를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건이 '진행 중'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지위 또는 정당성과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다. 특히 제기된 쟁점이 새로운 성격을 띠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진 절차적 결정에 반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항소가 제기되기 전에 1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 경우(항소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진행 중'으로 분류), 세 번째는 항소 결과가 알려지는 경우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의 상태가 '유리한 사건'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와 즉각적인 기후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류되었던 사건이 오히려 후속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법률 이슈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기각한 *Sacchi et al. v. Argentina* 사건은 기후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법의 몇 가지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사건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전반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